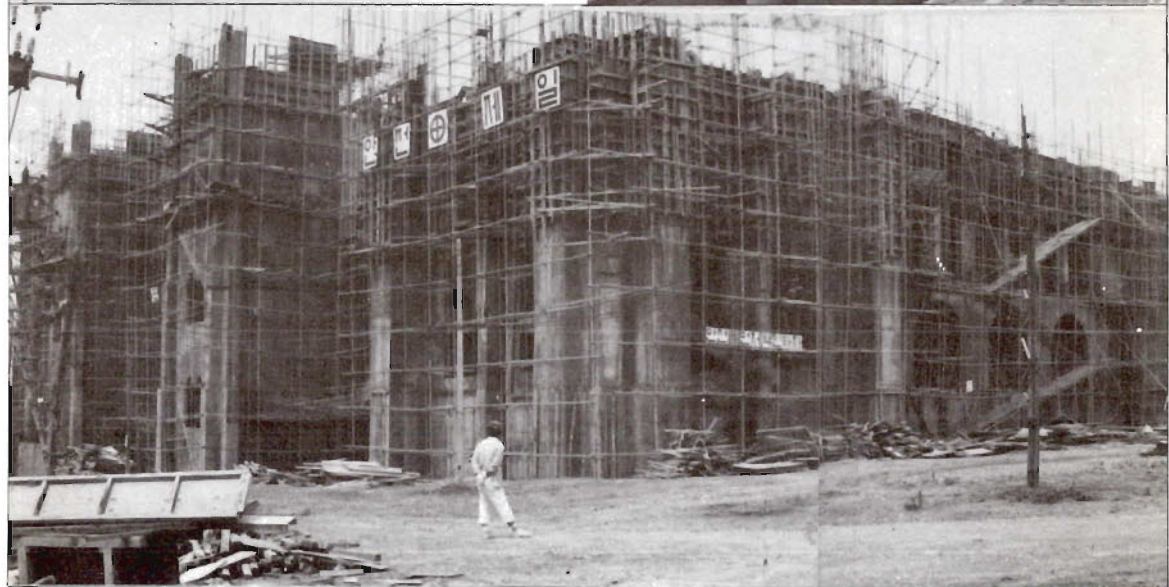


월간 증 현

The Monthly Chung Hyeon

'81 9월호



—교회설립 28주년을 맞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주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에 의해 28년 전 1953년 9월 6일 충현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되돌아 생각해 보면 36년간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피압박 민족으로 나라를 잃고 설움속에 지내고 있을 때 우리의 선진 성도들은 고귀한 신앙 수호를 위해 무수한 수난과 순교를 당하였다.

애굽땅에서 「바로」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로 해방의 감격을 주었으며, 이런 기쁨속에 혼돈과 무질서, 무절제로 인한 채적으로 6. 25동란의 쓰라린 비극을 면치 못하게 했다.

참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

포토화된 서울 남산 동북 기슭인 목장, 오장, 쌍림동의 음탕한 소굴, 일정(日政) 때의 조일좌(朝日座)란 극장을 무너뜨리고 또한 장충각이란 요정이 불타 버리고 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충현제단」을 쌓게 하셨다.

28년간 충현을 성장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지금까지 불들어 주신 인자(仁慈)와 사랑,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주신 값없는 선물에 우리는 기도로 아멘 할 수 밖에 없다.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로써 또는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와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을 위해 오늘도 충현의 1만 신도는 각기 처한 위치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제 성년이 된 「충현」의 발전적 부흥을 위해 다음 몇가지를 실행해야 하겠다.

첫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급진적 성장으로 인해 교세가 양적 팽창을 가져와 매 주일예배를 4부로 나뉘어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당(예배처소)이 다른 교회에 비하면 협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취한 조치이긴 하지만 숫자의 우세가 성도간의

의 사랑의 교제를 잊게하는 경우가 있다.

초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신자(기신자)도 체험적 사랑을 원하고 있다. 입으로만의 「사랑」이 아닌 행동적인, 희생적인, 마음으로부터 순수하게 우러나오는 만남의 교제를 피차 갖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중재한 십자가의 사랑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에스더의 사랑처럼, 요셉과 같은 깨끗한 사랑처럼, 다니엘과 같은 용감한 사랑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은 바라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충현제단」은 이 세상 교회에서 제일 사랑이 넘치고, 실천하는 교회로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자기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인으로 양육시켜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짓말을 잘한다. 책임과, 의무에 태만하다. 이중인격적인 위선자이다. 이런식의 조소와 책망을 들을 때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은 무엇인가 세상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행위가 잘못 전달되어질 때 오는 악영향은 기독교신자들에게 큰 상처와 타격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자기 일을 남에게 절대로 미루지 말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직장인들은 그 현장에서의 상행위나 직장생활에서 모범을 보여 주고, 언행실사를 불신자보다 다르게 구사해야 할 것 같다.

세째로, 교회성장의 저해 요소가 있다면 제거해야 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인본주의적 생각과 계획으로 인해 한쪽이 허물어져가는 저해 요인이 생긴다면 불행한 일이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잠입되어 예수 병자한 탈 기독교회적 예배 처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말씀(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며, 구제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만 힘써야 한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축복을 받으며, 칭찬받고, 권면받는 충현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작은 일의 충성은 결국 큰 것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는 것처럼 28년을 맞는 「충현」은 이런 비전 속에서 계속 성장되어야 하겠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9권 제8호 통권91호

— 9월호 차례 —

권 두 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손경수 · 2
이달의말씀	무지개의 약속	김장인 · 4
특별재언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김차생 · 6

□ 특집 좌담회 □

교회로 교회되게

김종석 · 존동운 · 종순실 · 이동규 · 이병학 · 윤용규	
정석태 · 조선근 · 조현명	10

월간 충현

특별취재	그는 누구인가	편집실 · 18
이 단 종 파	사이비 종파의 현황과 실태	손경수 · 21
특별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윤두한 · 26
편집실칼럼	28년의 반성	이형수 · 30
찬송가감상	내 주의 나라와 (새 532장)	김하진 · 30
도서정보	8월 중 들어 온 도서	도서실 · 31
책 소 개	음의 신앙	31
칼빈주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⑨	김하진 · 32
여행보고	보다 나은 세성전 건축을 위하여 ⑥	최 환 · 34
신앙간증	자거말거	최명실 · 39
신앙수필	길	조현명 · 41
농어촌전도	농어촌 전도를 다녀와서	이성은 · 43
여행기	성지순례 여행기	김기청 · 45
교계소식	월간교계 뉴우스	편집실 · 51
신앙상담	왜 모든 일이 어려워지나	김원남 · 52
권찰수첩	권찰이 갖추어야 할 일(5)	김원남 · 53
해외선교	해외선교지 · 선교사 소식	해외복음선교회 · 54
새 교 우	7 · 8월 중 새교우, 결혼, 별세자명단	편집실 · 44
교회소식	9월의행사	편집실 · 56
9월의행사	9월의행사	편집실 · 58
편집후기	편집후기	편집실 · 58
표지설명	금년 9월로 교회설립 28주년을 맞게 되는 우리 교회, 국내외적으로 사명이 더욱 무거워졌다. 저나쁜 날을 생각하며 앞날을 설계해 보자. 성화는 초창기 교회, 상우는 오늘의 교회, 하는 세성광의 공사가 한창인 광면.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무지개의 약속

〈창 9 : 8-17〉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담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무지개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약속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든지 나라의 정치를 하든지 모든 일에서 약속과 함께 유대를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이 잘 시행되면 기분도 좋고 일도 잘 됩니다.

1.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

1) 사람의 약속은 왜 깨어집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사람과의 약속은 잘 깨어지는 안타까운 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습니까?

첫째, 인간은 장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장래의 약속은 쉬이 깨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약속을 지키기에 어렵게 다가오는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인간은 힘이 모자랍니다.

육체의 힘, 지식과 건강의 힘, 권세의 힘이 부족하여 약속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는 일도 많습니 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내세운 공약들이 당선된 후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는 정치인들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약속을 자신의 욕심에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셋째,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끼리의 약속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있다가 약속한 상대방이 죽어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인간의 약속 사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으로 사람과의 약속은 믿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자기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자는 손해를 당하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약속은 왜 지켜집니까

첫째, 하나님은 그 능력을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변동시킬 수 있는 힘은 인간 가운데는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돈이 없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더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보시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영생하시기 때문입니다.

2. 노아홍수와 무지개 약속

하나님께서서는 노아홍수 때에 무지개로 약속하셨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40일간 내린 때는 온 땅을 덮고 10개월 동안이나 넘었습니다.

1) 노아홍수의 원인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음란죄가 땅에 가득했습니다.

노아시대에 이 땅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음란한 죄가 땅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둘째, 교만한 죄가 가득했습니다.

노아에게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뜻을 노아는 땅주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들을 말은 듣고 순종하고 고



칠 것은 고쳐야 하는데 사람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서 믿지 아니했습니다.

세째, 악을 선보다 더 좋아하는 강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고 악자를 이용하는 자기 중심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만을 위한 인생은 선을 행하기 힘들고 손해가 나자 자기만 좋은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노아는 구원하시려고 방주에 들게 하시고 죄악에 물든 사람과 짐승까지도 모두 멸하셨습니다. 노아 홍수가 이 땅을 모두 덮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고 있으나 우리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발견된 소라의 화석과 안데스 산맥, 소금으로 이루어진 산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홍수가 그쳐 수많은 집과 사람들의 혼적조차 없어진 땅에 내린 노아의 적막과 허탈, 불안한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약속의 표를 주셨습니다.

2) 무지개로 약속하신 이유

땅 위에 내린 노아에게 하나님은 공중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약속의 표입니다. 무지개로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쓸쓸하고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열심히 일하여 살아갈 용기를 주셨습니다.

둘째, 번성하고 장성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생명을 막론하고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쌓이면 번식이 못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모든 생명을 번식시키 이 땅에 가득 차게 하도록 약속의 표를 주셨습니다.

세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악한 일을 행할 때에 무서운 심판이 임했듯이 선을 행하면 축복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없이 믿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3. 약속의 교훈

우리는 노아 홍수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홍수심판을 인간은 비웃었으나 그대로 이루어졌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4,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죄를 범할 때에는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차, 2차 세계 대전과 지금 미국과 소련만이 가진 무기를 볼 때 이 생각이 불로심판되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아시대와 오늘 우리시대의 죄를 비교해 봅시다. 개인주의와 실리주의, 무엇으로 보든지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무서운 죄가 넘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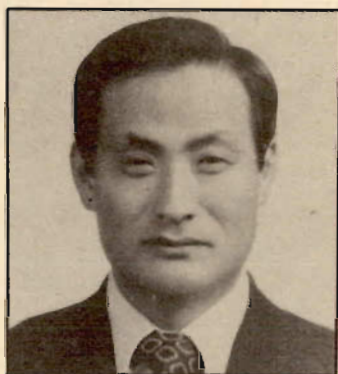
무지개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십자가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을 버리신 이 약속은 무지개의 약속보다 더 크고 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원컨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남은 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여러분 되어 우리 가정과 나라와 교회가 하늘과 땅의 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김 차 생 장로

(월간중현편집위원 · 교우편집위원)



1.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것이 잘되어 있어도 이것을 회복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리라 하셨다.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는 허상뿐이고 실상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략 7백만교인 운운하고고도성장을 뽐내는 한국교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 다시 말하면 허상뿐이고 실상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 허상뿐인 한국교회에 7백만이 아니라 1천만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수억대를 들여서 백만, 이백만 모이는 화려한 대집회를 해도 촛대를 옮겨가신 후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다.

민족 상잔의 6. 25의 와중에서 야전용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앉아서도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개하고 새사람 되게 권고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의 눈물로 찬송하며 기도하던 그 시절에는 그래도 사랑이 있었다. 죽 한 그릇을 앞에 놓고도 이것마저 먹지도 못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이 있었고 판자집 불기없는 방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잠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그래도 삶의 고마움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나누어 먹고 나누어 가지면서 감사 감격의 생활을 했던 것이다. 이 사랑의 기반 위에서 우

리들의 삶은 윤택해졌고 우리들은 야전용 천막의 예배당을 헐고 판자집을 지었다. 그 판자집을 헐고 다시 벽돌집을 지었고 그 벽돌집을 헐고 오늘과 같은 현대식 예배당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성도들의 수는 늘어났고 도시교회뿐 아니라

대형교회가 많아졌다. 주일날이면 교회의 버스들이 분주히 시내를 오고가며 교인들을 실어나르고 성경찬송가를 들고 예배당을 찾아나서는 교인들은 도성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잿더미에서 시작할 때에 가졌던 처음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하던 일이나 한국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주님께서 촛대를 들고 떠나버린 빈 땅에 남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2. 소금도 빛도 못되고

향후 3년이면 한국교회는 교회설립 백주년이 된다. 선교 1세기를 청산하고 2세기의 꿈을 펼치게 된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선진 서구교회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자세를 청산하고 스스로 걸로를 정하고 달려갈 수 있을만치 성장한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과소평가 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한 것이다. 사실 한국교회의 잠재력은 엄청난 것

이다.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만큼 막강해진 것이다.

만주에서 번역한 몇권의 성경을 (꼭복음) 개나리 북짐에 숨겨 들어온 서상륜이나, 일본에서 성경을 들고 들어온 이수정등의 선각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린지 이제 백년의 역사를 쌓았다.

이 백년에 처음 시작하던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상 유래없는 성장을 한 것이다. 아시아 어느나라에서도 이를 수 없는 선교의 성과를 한국교회가 이룬 것이다.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아시아 교회에서 당연 선두에서 달리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하기까지 한국교회는 온실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수난을 경험했던 것이다. 이 수난의 경험이 오늘의 교회를 이룬 것이다. 이 성장이 있기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한 많은 철두철미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던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중에는 순교의 피를 흘린 이도 있고, 옥중에서 혹독한 수난을 당한 이도 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온갖 희생을 달게 받았던 주의 신실한 종들과 선배들이 있었던 까닭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한 것이다. 이 신앙의 선배들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버리는 삶을 택했던 것이다. 신앙의 결단과 동시에 과거에 속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형국이 동반하는 새 삶을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 지도자나 교인들에게서는 이런 결단을 보기가 어렵다.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썩어가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교계나 사회에 방부제가 되리라는 결단이 개인도 교회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적당하게 믿고 쉽게만 살려고 하는 것이다.

말아래 있는 등불이나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소용이 없다. 문밖에 버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아버릴 것이다. 내가 진정 기독 신자인가? 내가 과연 주의 피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할 때 신앙의 선배들이 스스로 자기가 갈 길을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걸어간 그 위대함을 생각하게 된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가신 가시밭이라도 따라가야 한다.

3. 가치관의 변화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다분히 사도행전적인 것이었다. 신앙을 통해 삶의 변화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했다. 과연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두주를 불사하던 사람이 술을 끊고 출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칩을 데리고 살던 사람이 칩살림을 청산하고 분수 넘치게 화려한 생활하던 사람이 근검한 생활로 전환을 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곡간을 키우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곡식을 나누어 주고 학교를 세우고 예배당을 짓는데 막대한 현금을 했다. 삶의 목표가 주님이었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했다. 때문에 스스로의 삶보다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을 큰 보람

1907년 부터 한국교회 대 부흥을 가져온 것은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한 윤리적인 결단을 했던 까닭에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의 열기가 함께 모여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이다.

으로 알았다. 이와같은 삶의 개혁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이들은 말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복음을 전했고 행동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이들의 삶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삶을 살다 간 선배들의 신앙위에 오늘의 한국교회 선배들을 낳은 것이다. 때문에 한국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성장이 가능했고 그분들의 삶이 바탕이 되고 있는 까닭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분들의 굳고 분명한 신앙적 결단과 삶에 비하여 오늘의 한국교회 교인들의 삶은 너무나 가늘고 불투명한 것 같다. 그 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복음을 자랑하며 한 생애를 살아갔다. 그러나 오늘날 교계 지도자나 교인들도 과연 이 복음만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그분들의 삶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 하시고 장차 재림하실 주님이 전부인데 비하여 오늘의 한국교회 풍토는 완전히 다르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돈이 없고 돈이 되지 않는 일에는 관심조차 하지않고 돈을 주님보다 높은 자리에 얹혀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만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자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안일한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도 못하고 될대로 되라

는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말 한마디로 면할 수 있는데도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이빨을 꼭 다물며 앞서가신 주의 신실한 종들의 이야기를 그냥 옛 이야기로만 듣고 넘길 것인가? 우리들의 삶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결단이 지금 요청되고 있다. 너무나도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4. 주님만을 본받아

예수님은 두 벌 옷이 없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생활에도 스스로 자제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알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기에게 온 풍요의 축복이 주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받은 축복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맡기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자신은 언제나 청지기여 불과하다는 겸손한 생활의 리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재물의 풍요를 하나님께로부터 축복 받은 사람들은 겸손된 마음으로 근엄한 생활을 해야 하며 우리는 다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독교인의 삶은 청빈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빈이라고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인을 생활의 자세는 어떤가? 성빈 생활을 자랑으로 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활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다. 할 수만 있으면 안락한 생활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내 이웃과 남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느 때까지 자신의 풍요를 노래하면서 내 영혼아 즐거워 하라고 할 것인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지나치게 세속 생활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일이 한없이 어려워지고 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각성해야 한다.

5. 성경에 매달리는 생활

초대 한국교회는 사경회라 하는 것이 있었다. 즉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열을 올렸고 교회마다 절기에 맞추어 사경회를 열고 성경 공부를 했다. 또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신앙 생활의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사경회보다 부흥회가 성행한다. 자기 자신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부흥사들을 불러서 그분들만이 축복을 주는 양, 축복 대성회니 신년 축복대성회니, 은사부흥회니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로 위운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인 까닭에 새로운 삶의 결단이 추반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모르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1907년 부터 한국교회 대 부흥을 가져온 것은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한 윤리적인 결단을 했던 까닭에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의 열기가 함께 모여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이다.

삶과 연결되는 신앙 생활은 성경의 지식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받은 후에 질서가 추반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보다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우리 충청교회에서 매주 5일간 저녁마다 성경 교재를 만들어 전교인 상대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올바른 삶의 바탕은 성경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6.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

당시 부흥 사경회서나 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성가를 보아시도 알 수 있다.

성가를 몇곡 소개 한다면

거룩함과 인내로 실패한을 단장코
공중혼안 그날을 매일고대 합니다.
사모하는 천국집 지금 찾아 가보니
영원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던 주님.
내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시간 기다리고 계신 내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주님 언제나 고대합니다.

신부되는 교회가 환웃을 입고
기름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산곡에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에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에 광채속에 열두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다.

특히 저녁에배 시작하기 전에 많이 불렀고 어린 주
일학교 학생이나 어른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불렀다.
필자도 어릴때 교회 벽에다 붓글씨로 크게 써 붙여놓
고 불렀던 기억이 새롭다.

물론 당시 시대적 배경이 그러했지만 3.1운동이
후에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한 킥박과 온갖 역
경을 겪으면서 세상에는 눈물 뿐이요 라는 성가를
부르면서 그 험한 시험을 이겼는지 모른다.

요즘에도 이런 성가가 복음송에 압도 당하고 그
진의도 모르고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마구 불러지

고 있다.

복음송 중에서도 좋은 것이 있음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그 노래곡이 거의 흥분위주로 된 것과 특히 젊
은 사람들의 매력을 끌려고 작곡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결함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세속
적으로 만들어낸 취미 위주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끗한 구원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찬송이라야 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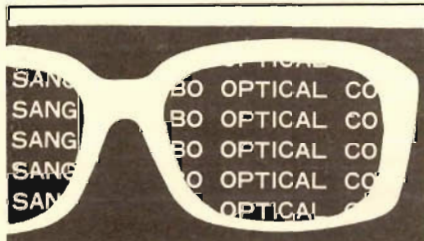
지금 학원가 기독교학생 서클에서 나온 노래들을 보
면 유행가곡에다 가사를 붙여 부르고 있다.

필자가 느끼는 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가 아무리 시
대가 변하였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되어 간다면 주님
께서 축대를 옮기실까 두렵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
도 교역자도 문제가 된다. 학생들에게 끌려가는 교
육을 탈피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신학교에서도 무엇인가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가?

어떤 분들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데 무
슨 손해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 한다면 우리는 하
나님의 말씀을 전할때 하나님이 동반하지 않는한 올
바른 종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

이제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심판으
로 부터 벗어나 수 있도록 너도 나도 회개운동을 벌
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도 교회도 살길은 이 길 밖
에 없다.



상보안경원

대표 장 형 석

1. 각 안과 의원처방을 정확하고 신용있게 만듭니다.
1. 고굴절 렌즈로써 고도의 기술로써 봉사합니다.
1. 경주남석, 전문취급업소로써 보증판매합니다.

명보극장내거리 常寶眼鏡院 267-0946

□ 특집 좌담회 □

교회로 교회되게

|| 지방의 20개 교회 탐방 ||

교회설립 28주년을 맞으며 월간충현 편집실에서는 현재의 우리교회를 내·외적인 입장에서 조명해 보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등을 살펴보는 특집 좌담회를 가졌다. 마침 지난 6월 3-6일(3박 4일)에 우리 교회의 32명 장로님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이리, 군산의 20곳의 교회를 탐방, 그곳의 목사님,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편집실에서는 여기에 참석한 장로님들 중 몇분을 선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에 실시한 장로님들의 지방교회 탐방은 여러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장로님들이 직접 외부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을 통한 중현교회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지방 교회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며 이해할 수 있다는, 즉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살펴봄으로써 또한 현재 우리 교회의 부족한 면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는 일은 무척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좌담회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 좌담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반드시 옳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교회설립 28주년을 맞은 우리교회의 입장과 시점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처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솔직하고 참되게 자주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을 밝히고 싶다.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6일간 방문한 교회는 다음과 같다. 장로님들은 4개조로 편성하여 각조가 중복하여 혹은 각조별로 각 교회를 탐방했다. (편집자)

- | | |
|-------------------|-------------------|
| ● 대전 | 부전교회(합동/한병기 목사) |
| 대전중앙교회(합동/이영수 목사) | 온천제일교회(합동/장차남 목사) |
| ● 대구 | ● 광주 |
| 서문교회(합동/이성현 목사) | 광주중앙교회(합동/변한규 목사) |
| 대구제일교회(통합/이상근 목사) | 동명교회(합동/최기채 목사) |
| 동신교회(합동/김창림 목사) | 은광교회(고신/이 선 목사) |
| 서현교회(합동/김수학 목사) | ● 전주 |
| ● 부산 | 전주서문교회(합동/서은선 목사) |
| 부산영락교회(통합/고현봉 목사) | 동부교회(합동/김안신 목사) |
| 초량교회(합동/최동진 목사) | ● 이리 |
| 서부교회(독립/백영희 목사) | 이리중앙교회(합동/김규섭 목사) |
| 사상교회(고신/박창환 목사) | ● 군산 |
| 전포교회(합동/조해수 목사) | 개복동교회(합동/김종석 목사) |
| 거제교회(고신/김종한 목사) | |

일 시 / 1981년 8월 23일 오후 2-5시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참석자 / 김종석 장로 (교육위원회 총무국장)

손동운 장로 (전도위원회 위원)

송순일 장로 (감사위원 수석위원)

이동규 장로 (예배위원회 위원)

이병학 장로 (건축위원회 회계)

윤용규 장로 (교육위원회 위원)

정석태 장로 (감사위원)

조선근 장로 (해외복음선교회 서기·월간충현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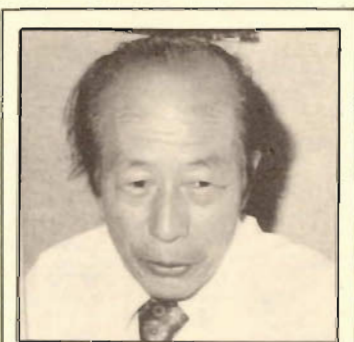
사 회 / 조현명 장로 (월간충현 편집위원회 위원장)



사회자 /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현교회 설립 28주년을 맞이하고 새성전 준공을 얼마 앞두고 우리 교회의 지나온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충현교회의 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의 지방교회 탐방을 통해 듣고 보면서 여러가지 점들을 느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때를 생각하며 밖에서 본 우리 교회와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 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교회들을 탐방하고 난 소감과 충현교회의 사명을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윤용규 / 이번 기회에 매우 강하게 느낀 것이 있는데, 바로 장로의 책임입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서울의 충현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탐방온다고 하니까 대전 어느 장로님은 서울에 계시다가 일부러 시간을 맞추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의 각 교회에서 느낀 것은 교회마다 그 교회와 애환을 같이해 온 장로님들이 굳건하게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의 교회들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

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등 모든 면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게 느끼고 우리가 현재와 같은 안일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느껴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 / 조현명 장로

조선근 /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모든 면에서 수준 높은 장로로 성장되어 가야겠구나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신앙인격면은 말할 것도 없이 개인적인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나 신앙윤리적 차원에서 높

은 수준을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탐구적이며 자기 개발적인 입장에서 성장하여 우리 교회와 같이 큰 교회에서 모든 장로님들이 일일이 교회 정책수립에 참여하지 못하겠지만 집토나 조언, 평가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충현교회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새삼 앞으로 충현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심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교회가 바른 교회상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해 보았어요.

이동규 / 많은 교회에서 감탄하기를 어떻게 30명이 넘는 장로님들이 이처럼 바쁜 가운데 3박 4일이라는 기간을 할애할 수 있는가 하며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일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이 더욱 크고 중대하다고 봅니다. 각 교회에서 많은 사랑과 환대를 받은 것이 인상 깊습니다. 앞에

서도 조장로님이 말씀하셨지만 충현교회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매우 많다는 것은 우리 모



이동규 장로

두가 느낀 일입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고단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왜 충현교회가 침묵을 지켰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참 마음이 괴롭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많고 또한 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전혀 도외시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충현교회의 현실이라고 볼 때 한국교회의 리더로 매사를 거교회적 차원에서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병학 / 대체적으로 충현교회에 대해 호의와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또 일부에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나타나 충현교회에 대해 기대도 컸지만 실망도 크다고 한 곳도 있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꼭 충현교회에서 자라 장로가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른 교회를 다니며 이런저런 면을 살펴볼 때 정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의 충현교회와 지금의 충현교회는 큰 차이가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좀 지나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 구태여 다른 교회를 다녀보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가나 충현교회에서 왔다

고 하면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고 할까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방교회의 탐방을 해보니 더욱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방의 각 교회가 그동안 빠른 뎀포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무척 그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충현교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손동운 / 우리 교회에 거는 기대 가운데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충현교회가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기대를 들으며 충현교회가 지방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송순일 / 충현교회에 대해 거는 기대나 요망하는 일들은 우리가 그동안 꼭 들어 왔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했기에,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크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현이 한국교회의 시선을 받고 있으니 매사를 좀 더 한국교회 차원에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총회 산하 각 기관에 도움을 주는 교회로,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양적인 면보다는 내적실력을 키워 명실상부 전국 교회에 본을 보이는 교회로 발전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 저희가 지방교회들을 탐방하게 된 목적을 교회설립 28주년을 맞으며 충현교회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충현교회에 향하신 하



- 군산 개복동교회 (김종석목사 담임)에서 -

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상호 대화와 견문을 통해 찾고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탐방을 하면서 고무적인 것도, 충격적인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앞에서 몇분 장로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교회들의 발전은 꼭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교회들이 것처럼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어디에 있었는지, 각 교회에서 느낀 그 교회의 특징적인 면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태 / 교회가 커 나가면서 교회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교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당회원들 상호간의 대화와 이해문제가 있는데 대전 어느 교회는 당회장과 당회원이 매주일 회식하며 자유투로 교회내외의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어려운 일을 잘해 나가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김종석 / 광주 어느 교회의 교회 운영방침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장로회 정치란 당회장(목사)의 처리권과 장로들의 처리권을 동등하게 하고 상호협력을 이루도록 하는 주권재민의 민주체제이므로 당회는 민주제, 제직회는 공화제, 각 부는 자치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위우나 실제 실행하기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과 인적자원 등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한다는 점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병학 / 일반적으로 볼 때 공통된 점은 당회장을 중심으로 당회원이 하나가 되어 화목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운영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았고, 또한 부산 어느 교회에서

는 목사님의 실수에 대해 기도하며 이해하고 협조하고, 목사님이 이단을 주장하지 않는 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점과 또한 그런 가운데도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과 맹종하는 것은 구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동운 / 광주 어느 교회는 예배시간을 한시간으로 마치고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데도 차고 넘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용규 / 군산에서는 장학금제도를 강화해서 신앙있고 두뇌명석하면 일반 대학생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하여 키우고 해외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지 않고 합동선교를 하려고 한다는 것도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김종석 / 부산의 어느 주일학교는 8천여 학생이 모이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것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와 학생 자신이 전도한 학생으로 반을 편성하여 가르치고 교육의 일관성은 결핍될지 모르겠지만 공과는 전주 당회장 목사님의 메시지를 정리하여 각급 학생에게 맞도록 가르치고 하는 일 등은 특색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선근 / 균형있게 발전하는 교회를 잘 살펴볼 때,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교회의 일원이 됨을 인식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과 다른 교우들을 돌보며 보살피는 일을 매우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 / 예,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이번의 탐방은 모두 장로님들로 구성되었기에 타교회의 장로님들의 활동들과 당회운영에 관해 깊은 관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당회운영과 당회원들의

교회에서의 활동범위는?

이동규 / 장로는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시간엄수, 언어, 행동, 사생활까지도 조심하며 당회장을 보필하며 당회장의 입장을 잘 보살피 준다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조선근 / 당회장을 중심으로 각기관의 장(長)이 되어 각 기관을 지휘, 감독하고 특히 주일학교의 부장으로 지도, 감독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주요부서의 일은 모두 장로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주적인 당회운영이었고 몇몇 교회는 철저한 당회중심운영이었어요. 다소 있음직한 교역자 중심의 운영체제를 가진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석태 / 전체적으로 볼 때 전형적인 당회중심운영이었고 당회원 상호간



정석태 장로

에, 또 당회장과 매주일 자연스레 만나 대화를 가지며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를 잘 이해하는 가운데 당회를 운영해 나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탐방교회에서 느낀 점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는 우리교회로 눈을 돌려 이러한 탐방교회의 요구들과 이런 입장 속에서 우리교회의 위치, 보다 발전을 위해 강조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다 이야기의 방향을 모으기 위해 정리하면, 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면, 성장을 위한 면 내적 실력을 쌓는 면, 현안의 문제들과 대외적으로 나누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석 / 이번 탐방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느낀 점은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며 열심으로 매사에 일하며 구석구석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



김종석 장로

야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위해 먼저 기본적으로 장로로 장로의 직책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의무 등을 분명히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는 자세로 일해야 할 줄 압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입장에 서서 장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다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못하고 인정과 상황에 따라 자신을 처신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세워준 장로의 권위가 추락하여 교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교회는 문제가 쌓이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도록 장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교회의 다른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게 잘되어 있어도 그것으로 교회가 부흥하며 발전하며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석태 / 지방이나 서울의 교회의 차이가 매우 좁혀진 것 같습니다. 우리교회도 자부심만 가지고 있을 것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지방의 주일학교 부흥의 원인을 살펴볼 때 교사들의 열심, 전도, 심방 등을 특색있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 삼일저녁의 출석도 많습시다. 또 자체의 성경학원 제도를 두고 성경공부도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살필 때 우리교회도 보다 열심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장로님들이 자각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학 / 저도 당회원들이 먼저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회원들이 열심을 내어 교회내의 각 형편을 살피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며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사정도 알 뿐만 아니라 당회원 각자의 사정도 서로 잘 알아서 이해하고 돕고 하는 일이 활발히 있어야 되겠고, 특히 당회장님과과의 충분한 대화가 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당회원이 각 부서의 책임을 맡았을 때는 해당 부서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도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근래

에 부서를 안 맡고 보니 그런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당회장님이 직접 장로님택을 심방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형편상 어렵고 보니 당회장님과과는 대화할 여건이 못되고 당회에서는 모든 일이 사무적으로만 처리되고 만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송순일 / 그 문제는 우리교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에 모든 당회원이



송순일 장로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기구개편을 해서 각 위원회를 나눈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당회원과 당회장간의 상호 대화는 늘 자유롭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석 / 또한 외형에 치중하는 행사보다는 각 교인의 영적성장에 목표를 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주일저녁과 수요일저녁에는 더욱 영적만족을 줄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동운 / 우리교회의 성장속도가 가장 빨랐던 1960년대를 생각해 보면 스무살들이 한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당회장님을 보필하며 교



손동운 장로

회를 잘 도왔던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교역자나 교사나 각 행정 책임자가 한 부서에 오래 있어야 하는데 이동이 잦게 되고 할 때 외적인 면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동규 /지도교역자는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고 교사는 행정적인 면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조선근 /장로님들이 모든 면에서 잘 보살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펼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말에, 한 해를 결산하는 좌담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장로님들이 펴 한가해졌습니다. 주일 낮에 이처럼 몇시간씩 좌담회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좋은 증거가 됩니다. 예전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장로님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맡겨 일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주어야 활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교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은 어떻습니까?

김종석 /교육의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해결을 못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육에 연계성이 없다. 커리큘럼이 정비되지 않았다. 주일 학교 각부가 하나의 교회와 같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가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작성 등의 문제가 계속 문제로 남겨져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교육위원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교육전문가가 교육위원장이 되어야 교육전반을 검토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진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구비하여 진행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할 터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교육연구위원회와 같은 좋은 기구도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위원장이 없는 한 총현교회 주교교육이 더 이상 발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주교부장 집사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인데, 오랫동안 우리교회에 있으며 주교에도 관여하다 부장된 집사님들의 이야기는 정말 힘이 들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집사로 부장을 하는 경우 교사 통솔에도 문제가 있고 교역자와의 관계도 이상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도 이 점에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주교 각부의 예배 및 집회, 행사에 교육위원회 장로님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금년들어 이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하튼 집사부장제도는 금년까지 만 2년을 실시하게 되는데, 한번쯤은 정확한 평가를 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송준일 /타교회와 비교해 볼 때, 우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 여러 장로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역시 당회의 책임

이 제일 큰 줄로 압니다. 교회의 최고 상회로서 또한 교회의 핵심체적인 위치에서,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끌어 가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치리권을 갖고 있는 당회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이 당회의 책임을 생각할 때 다른 부서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회장을 중심으로 당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교회의 일을 성실하고 열심으로 돌보는 희생정신을 갖고 장로의 책임, 의무 등을 바로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로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자세 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지금까지 총현교회의 지내 온 것을 볼 때 무슨 일이라도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번 탐방과 또한 이런 좌담회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우리의 입장과 자세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규 장로

사회자 /매우 중요한 점들은 지적

해 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서로가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좀더 발전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총현교회가 대외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점과 탐방시 각 교회에 대한 설문중 한국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어떻게 답변이 나왔는지를 각 탐방교회에서 들은 바를 말씀해 주시지요.

조선근 / 예배시 경건미가 없어지고 박수치며 소리치르고 하며 샤마니즘의 경향으로 흐르고 감정을 앞세우고 있으며 설교시 자주 「축원합니다」를 남발하고 있는 현상도 우려할 점이라고 부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면은 많이



조선근 장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전통이 있고 성경 중심으로 해오고 있는 교회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한국교회에 관한 이야기나 총현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

으면서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은, 총현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고 깊이 느끼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하나 깊이 연구하면서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병학 / 부산 어느 교회에서는 수에만 치중하는 대교회주의와 명목주의, 실질주의를 알세우며 명예주의 위주로 흐르고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교회 지도자들이 작성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인 줄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늘 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줄로 압니다.

손동운 / 대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첫째, 신비주의와 육신축복만 추구하는 점, 둘째, 사회주의를 신앙으로 보는 점, 셋째, 질적성장보다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는 점등을 꼽았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신학적 바탕 위에 교리교육을 강화하고 성경공부를 바로 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태 / 부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교단내의 교회들이 법을 어기고 다른 교단과의 교류하는 점을 지적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총현교회가 교단 내에서 기대하며 주시하고 있는 교회인만큼 지방교회와 유인물 교환 등으로 친교,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용규 / 많은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목회를 하지 않고 매우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더군요. 그것은 아마 교회 성장과 발전을 교회의 지상목표로 할 때 생기는 문제들로 보아지면서 느낀 점은 우리 총현교회가 이

런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종석 / 교단의 분열과 교권싸움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실들을 놓고 생각할 때 누구나가 통감하는 일이지요. 이런 면에서 총현교회가 우리가 정치를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전혀 원치 않지만 교단분쟁 해결에 견인자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동규 /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성행하고 있고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운동만 하는 것도 한국교회 앞날에 큰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신학이 없으면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잘 아는 일이지요.

사회자 / 감사합니다. 오늘 좌담회의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총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하나의 소망이겠지만 이런 기회를 생각의 전환점으로 삼아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것 이기에 각자 생각하는 것을 한마디씩 해 주시지요.

이동규 / 교인들의 영적 성장에 큰 관심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윤용규 / 교회의 각 활동들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한가지 목표로 모아지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김종석 / 우리교회 밖에도 눈을 돌리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며 함께

집을 지는 교회와, 주교교육이 다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정석태 / 당회원을 중심으로 모두가 매사에 순수한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조선근 / 우리 자신들의 입장을 잘 살피며 내적으로 성숙하여 외적으

로 그 향기를 발하는 「교회로 교회 되게」 하려야 하겠습니다.

이병학 / 이전 충현교회의 이미지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충현교회 장로, 충현교회 교인 하면 누구나 인정을 해주고 부러워하던 때의 충현교회처럼 매사에 뿌리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각자 자기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교인과 교회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이병학 장로



사회자 / 오랫동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성경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처럼 귀한 자리를 마련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며 우리의 앞날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 모두가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심정으로 하는 것만큼 모두에게 소중하게 전달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이형수 집사〉

- 부산 초량교회에서 탐방을 마치고 -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김목사님의 프로.....□□
 □□.....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전해 들은 이야기와 대중집회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 많을 것이다. 또한 김목사님에 대해 알만한 자료도 별로 없기에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된 기독교 대백과사전 제3권 본문중에 수록된 김창인목사님 항목을 발간중현에.....□□
 □□.....게재하여 김목사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

그는 누구인가

基督教大百科事典 제3권에 수록

김창인 金昌仁 1917 - 장로교 목사. “죽어도 좋소. 그렇지만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마음대로 하시오.” 이것은 1948년말 월남(越南)하던 중 감시원에게 저지당했을 때 한 그의 말이다. 이와같은 급할 줄 모르는 신앙과 신념이 능력있는 목회자로서 오늘의 그를 있게 한 것이다.

그는 1917년 11월 18일 평북 의주군 의주면 동부동에서 기독교인 김택연의 5형제 중, 3남으로 출생하였다. 8세때 부친이 별세하였으나 모친(김택신)의 신앙에 의한 가정교육을 받아 국민학교 시절에 이미 성경을 14회 통독할 수 있었다. 14세때 선천 신성학교에 입학했으나 지병(폐결핵)의 악화로 3학년때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백마산 속에 들어가 요양생활을 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양환자들을 위한 예배 인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친구 박세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자신의 병으로 인한 요양생활이 목회의 길을 걷게 하였다. 1936년부터 장로교 전도사로 의주군 주내면 청전교회, 용천군 동산면 성동교회를 거쳐 1937년 의주군 월화면 추봉동 해천교회에서 시무하였다. 1938년에 접어들면서 일제의 교회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는 더욱 심해졌다. 뜻있는 교회지도자들은 조직적인 신사참배거부운동을 전개하였는데, 당시 평북지방의 주도 인물은 이기선(李基宣)목사였다. 이에 동조하여 신의주에서는 김창인을 비롯해 김

화준(金化俊)·이광록(李光祿)·김승룡(金承龍)·오영은(吳永恩)·심을철(沈乙鐵)등이 신사참배 불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1940년 3월 이기선·김창인·김형락(金溟樂)·박의흠(朴義欽)·계성수(桂成秀)·김성심(金聖心)·오영은·김화준·심을철 등이 모여, 1) 신사참배하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지 말 것, 2) 신사불참배운동을 일으켜서 현실교회를 약체화 내지 해체시킬 것, 3) 신사불참배신도를 규합하여 가정예배를 가지며 그것을 육성하여 교회를 신설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신사참배반대운동 기본방안을 발표하였다(이기선에 심중결서 15조 참조). 이와같이 신사참배반대운동이 조직적으로 확대되자 일제는 1940년 7월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자들을 검거하기에 이르렀고 이때 그는 만주로 피신하였다. 한편 만주에서는 봉천노회 소속 헌트(B. F. Hunt ; 韓富善)선교사를 중심으로 신사참배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는 일경의 눈을 피해 은둔하면서 김윤섭(金允燮, 심양감옥에서 순교), 박의흠(심양감옥에서 순교), 김양순 등과 연락을 취하면서 신사참배반대운동을 계속하였다. 8·15해방후 귀국하여 김인희(金麟熙)전도사 중심의 이북 재건교회운동에 참여하여 평북 만포읍, 황해도 황주읍에서 재건교회를 설립 시무하였다. 그러나 1946년 11월 3일 공산주의자들은 주일에 선거를 치른 것을 비롯해 기독교도연맹 구성, 공민증 발급 등 여러 모양으로 교

회를 휩박하였으며, 이때 그는 7차례에 걸쳐 공산당에 체포되어 수난을 겪었다. 그후 월남한 친구들과 교인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마침내 1948년 12월 월남하여, 역시 월남한 김인회 전도사와 함께 서울에서 재건교회운동을 벌여 장충동에 재건교회를 설립 시무하였다. 1950년 6·25사변이 일어나자 부산으로 내려가 서대신동에 있는 서부교회에서 잠시 시무하였고, 이듬해 동대신동 1가에 동일(東一)교회를 설립 시무하였다. 1953년 서울수복과 함께 상경하여 충무로 5가에 현 충현(忠峴)교회의 전신인 동일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는 1956년에 고려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57년 고신측 경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65년 경인노회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1970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에 피선되었고, 여의도 집회의 '80 세계복음화대성회 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많은 부흥사경회를 인도하여 부흥목사로도 널리 알려진 그의 목회이념은 「하나님 영광 중심의 신본주의」(시 18:1)로서 그 실천방안은 1) 천국일꾼 양성 2) 민족복음화 3) 북한 선교 4) 세계선교로 요약된다. 천국일꾼양성을 위해 그는 주일학교제도를 15부로 확장하여 각 연령층에 맞는 교육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73년 설립된 성경학원, 1981년 설립된 충현성경 연구원 등을 통해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있다. 1981년 현재 300구역 약 3,900세대의 대교회로 성장한 충현교회는 실로 그의 목회신념과 그 실천의 결정체이며 그 결과 윤영탁(합동신학원 교수), 신성중(총회신학대학원 교수), 이종운(아세아연합신학원 교수), 김영한(송전대학교 교수) 등의 신학자와 많은 목회자 배출이 가능케 되었다. 민족복음화를 위한 사회선교분야에 있어 그의 공은 지대한 것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족복음화운동의 주역으로 각종 대중집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특히 1966년 경찰전도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일하며 경찰선교를 체계화하여 전국경찰연합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군선교·교도소선교·병원선교·문서



선교 등 각분야에서 적극 활동하였고, 1967년부터는 극동방송(HLKX)방송망을 통해 방송선교를 본격화하였다. 이외에 농촌선교도 적극 추진하여 농어촌 지도자들을 초청 훈련하고 벽지 농어촌에 교회들을 설립하며 전도대를 파송하였다.

민족복음화운동의 차원은 남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북의 공산 치하에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목적으로 1973년 씨앗 선교회란 이름으로 시작된 북한선교회는 선교요원 훈련을 비롯하여 제 3국을 통한 북한선교에까지 관심을 두게 되었다. 1971년 서만수선교사를 인도네시아에 파송한 것을 필두로 1981년 현재 세계 10곳에 1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국으로서의 한국교회의 성장을 세계에 알렸으며, 덴마크유립선교대회·스웨덴지하선교대회 등 각종 선교관계 국제회의에 10회에 걸쳐 참가하였고, 해외동포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집회를 통해 크게 활약하고 있다.

보수주의 신학적 입장을 지닌 그는 감화력 깊은 설교가로, 목회의 승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에는 "일찍이 예수님을

믿은 좋은 부모님, 한국교회에 큰 발자국을 남긴 이기선 목사님,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인 친구들 덕분에"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충현교회 당회장 외에 북한선교회 이사장, 대한성서공회 재단이사, 한국기독교실업인회 고문, 월간목회 편집고문,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동생 창명(昌明)도 목사(서울 성광교회 시무)이며, 부인 박명식과의 사이에 3남 2녀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 아소교 장로회연감, 중회 종교 교육부, 1940; 안용준, 태양신과 싸운이들(上), 칼빈문화사, 1976;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기독교문사, 1971; 한국 목사 대사전, 은성문화사, 1973; 義州郡誌, 1975; 이형수, "충현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 월간충현, 1976, 9; 한국 기독교 대사전, 성은출판사, 1978; 최훈, 한국 교회 박해사, 예수 교문서 선교회, 1979; 충현25년사, 1979; 김광훈편, 평북노회사, 1978; 신동일,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을 찾아서", 월간목회, 1979, 7. <조선근>

□ 집필자의 말

글쓰는 전문가도 아닌 내가 기독교 대백과사전의 김창인 목사님 항목을 집필하게 될 때 조심스러웠던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평소에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에 대한 세간의 수목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기사의 오류등으로 미흡한 점이 많아 안타까와하던 터에 뜻하지 않게도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물론 이것도 완벽한 기록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필자는 오늘의 김목사님이 한국기독교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 할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역사등 관계 자료등을 통해 한국교회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추적하고 나서 사전편찬실 국내자료부의 검토를 거쳐 다시 정리하였다. 김목사님과 충현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생각하고, 앞으로 전문가에 의해 더 깊이있게 연구, 정리되기를 바란다.

조 선 근 장로
(월간충현 편집위원)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를 보급합니다

●강 의

김희복목사

- 아모스서 (90분용 - 11개) - 11,000원
- 호세아서 (60분용 - 9개) - 7,000원

신성종목사

- 로마서 (60분용 - 7개) - 4,900원
- 요한계시록 (90분용 - 12개) - 12,000원

이종윤목사

- 신구약개설 (90분용 - 6개) - 6,000원
- 창세기 (90분용 - 8개) - 8,000원

※ 2학기 강의는 매일 90분용 1개에 녹음됨.

충현교회 출판국에서는 충현의 강단을 통해 말씀되어지는 설교 및 강해와 찬송등을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 보급하고 있습니다.

● 보급하고 있는 종류는

- ① 김창인 목사의 주일설교 및 수요강해
- ② 협동목사의 주일설교
- ③ 부목사의 주일저녁설교 및 수요설교
- ④ 성가대의 찬송가 선곡 (1) (2)집 및 영아·유치·초등부 찬송

●설 교

90분용 - 예배전제 - 1,000원
60분용 - 설교만 - 700원

●찬 송(금년 8월에 새로 녹음된 것임)

새찬송가 제 1집 (독창)
어린이 찬송가 제 1집 - 초등부

● 문의 및 신청

월간충현편집실 전화 : 260-3407, 3408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출판국

■ 첫머리에

한국 종교연구소에 의하면 한국에는 종교인구가 전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기독교는 93개 교단으로 약 7백만명 이상이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장로교가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감리교(82만명), 성결교(45만명), 침례교(25만명), 기타교단(2백 40만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별히 신흥종교는 340여개 단체인 가운데 불교, 증산교, 단군교, 도교, 동학교, 외래교, 찬물교, 정역, 무속등 12개 계통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이비 종파의 현황과 실태

이 가운데 기독교 계통 신흥종교가 85개 단체나 되고 이중 40여개(50%)가 서울에 있다. 이 안에는 통일교, 전도관, 여호와 증인, 천국복음전도회, 예멘 성회, 물몬교 등이 있다.

이런 종교 분포 가운데 기독교회의 암적 존재인 사이비 종파의 난무로 인해 기성교계가 혼란함은 물론 순진한 교인들이 이들의 미혹에 걸려 재산을 빼앗기고, 불건전한 성행위나 타락된 윤리와 도덕관이 판을 치는 위태로운 국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본 란을 통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비 종파의 실태를 소개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 신학, 그리고 종교 활동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절대로 이들의 울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보자는 것이다.

1. 통일교(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지난 5월 부산 지역에서는 국제승공연합 부산시·동부경남 지부 주최로 「전국 리, 동 단위 안보단합대회」가 개최되어 큰 말썽을 일으킨바 있다. 안보대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행사를 주최한 국제승공연합회가 바로 위장된 통일교이기 때문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는 기성교회의 장로들을 미혹하여 제주도 여행 알선을 해주며 선심공세를 퍼, 어떤 교단의 노회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면직 결의까지 하는 극한 사태에 이르게 한 적도 있었다.

또 통일교 집단은 일부 기업에 편승하여 기업활동을 와해시키는 작전도 서슴치 않고 있어 교계에 초비상을 오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손 경 수 집사

(청년부부감·월간충현편집위원·기독신보사편집국장)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월간말씀」 1백여권 가운데 몇가지를 살펴보면 통일교는 스스로 기독교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기독교는 완전한 구원이 없으며, 허황된 종교”라고 말씀 185호 35P와 2백 1호 15P에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통일교도 스스로 구원이 없고 허황된 종교란 것을 예시하고 있다.

통일교회가 말하는 「하나님관」에 의하면 ① 하나님은 1남성과, 1여성으로 되어 있고, ② 하나님은 아담을 닮았다. 그러기에 아담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③ 하나님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관은 ① 예수가 문선명씨의 부하라 한다. ② 예수님은 영적 구원만 하고 결혼을 못해서 실체구원을 못했다는 것이다. ③ 예수가 참 부모로서의 사명을 못했다는 것이다. ④ 참 부모의 사명은 문선명씨라 한다.

또 재림관에 의하면 바로 지금 예수가 한국땅에 재림했으며, 재림주는 구름타고 절대 오지 않고 초림 때와 같이 여인의 몸에서 온다는 것이며, 재림 예수는 신부(여자)를 찾으러 온다고 예수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이상 세계요, 통일교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완전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재림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구원관에 따르면 “기독교는 구원이 없으며, 허황된 종교”이며, 부활관에서는 영만 부활했고, 예수님 시체는 해룻왕이 감추었다는 것이고,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지 구원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런데 통일교는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Bible) 외에 그들의 정경을 갖고 있다.

박영관박사의 「이단종파 비판」에 의하면 그들은 그것을 「성약서」(成約書), 혹은 「원리강론」(The Divine Principle)이라 한다. 그리고 통일교는 그것을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여기고 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을 신(神)이 문선명씨에게 준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며, 절대적인 신적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의 「원리강론」은 신적 계시의 산물이 아니라 김백문씨의 「기독교 근본원리」를 표절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문선명씨가 김백문씨의 문하생이었고, 「기

독교 근본원리」와 「원리강론」은 구조와 용어의 유사성이 많으며, 양자는 인간과 자연을 유추해서 창조주 신을 정의하고 있으며, 인간의 타락은 사탄과의 혈연적 관계임을 서로 밝히고 있고, 역사의 순환론적인 귀일주의를 주장하며 그리고 새 시대 곧 성약시대 등을 말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원리강론의 창조원리는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을 창조한 신의 존재를 규명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창세기 1:27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를 인용하여 신은 양성(陽性)과 음성(陰性)의 2성상의 중화적 존재자라고 한다.

그리고 신에게 있어서 양성과 음성은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원리강론의 창조론은 고대 헬라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질료의 상호관계를 말하는 창조론으로서 그들은 유(有)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신의 창조를 말하고 있다.

결국 원리강론의 창조론은 범신론(汎神論)이며, 초연신론을 말하고 있고, 섹스(Sex)를 모티브로 한 신을 말하며, 동양철학의 역학을 중심한 상대적 신과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원리강론의 타락론은 맨처음에 천사와 하와의 혈연관계로 인한 타락을 말하고 다음에는 하와와 아담과의 혈연관계로 인한 타락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는 인류에게서 타락한 천사의 더러운 피를 가려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원리강론의 타락론의 근본원리다. 여기에서 자연히 생기는 것이 「피가름의 원리」이다.

그들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타락한 피를 혈액순환으로써 제거해야 하므로 먼저 피없는 피를 주입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천사와 하와와의 혈연관계의 방도로서 해야 한다고 한다. 즉 그것은 입이나 코나 눈이나 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피를 가진 자와의 혈연관계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태여 더 설명할 필요없이 원리강론의 타락론은 범성육주의적인 것이요, 섹스적인 원리이다.

기독교에서 기독교회의 예수님을 구속사역에서의 실패자로 보며, 삼위일체의 제2위의 실격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상의 보혈의 구속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부인하고,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의 혈연적인 관계로 인한 선의 자녀를 낳아서 구원의 성취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원리강론의 재림론, 복귀원리등도 교주 문선명씨에 맞게 해석하고, 또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여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통일교는 신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이며, 정통 기독교가 아니다. 통일교는 우리 나라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에서도 추방령이 내려져 있는 것으로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신학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종의 행위구원을 시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구원만을 이룩하였고, 육적구원을 성취 못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문선명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치하고 있다.

또 통일교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의 혼합주의이다. 통일교는 모든 주의(ism)사상, 정치, 종교들을 하나에 통일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리적으로 볼 때에 섹스주의이다. 통일교는 시작부터 에로스적이고 그들의 진행과정도 성적이며, 중국도 혈연적인 것이다.

그들의 원리강론과 통일사상, 창조원리, 타락원리, 복귀원리가 역시 에로스적이다.

이것은 새 피를 받은 문선명씨를 중심한 고차원적 밀의적(密儀的) 혈연관계의 섹스주의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2. 에덴 문화연구원(일명 만교 통화교)

에덴문화연구원 교주는 김민석(본명: 允烈, 43세)인데, 80년 10월 24일 사기혐의로 입건되어 11월 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구속된 바 있다.

동 사이비 종교의 창립경위는 1971년 4월에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동에서 10여명이 창교하고 자칭 심판주요, 심판왕이며,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민석성서」란 책을 만들어 공포했다.

만교통화교의 교리에 의하면 민석의 말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 주장하며 만교통화(믿음, 소망, 사랑)를 주장하고 있다.

성경을 위시해서 팔만대장경, 사서삼경 등의 모든 경전은 온전한 것이 못되고 부분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창조일은 6천년이 걸렸고, 1천년을 쉬었다고 한다.

삼위일체는 영체, 심체(마음), 신체(육)를 말하며, 100억년전에 민석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살렘에서 함께 거닐고 다녔다고 한다.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기간이 50 억년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기간이 1975년 3월 18일을 기해 50억년이고 총 하늘과 땅의 수명이 100억년이라고 주장한다.

시공을 초월하며 유무상통하고 자유자재하며, 신약 무애의 자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 천년왕국 건설을 하고 생도궁(生道宮) <12궁을 말함=백양궁, 금우궁, 쌍녀궁, 거해궁, 사자궁, 실녀궁, 천천궁, 천혈궁, 인마궁, 마갈궁, 보병궁, 쌍어궁>을 1987년 4월 3일까지 세운다. 또한 첫째 궁에서 다음 궁으로 옮겨지는 기간은 8억 3천 3백 30년이 걸린다.

궁안에는 4 시대가 있는데 1 시대는 2083년이다. 1987년 4월 3일 까지 생도궁을 짓고 만교통화를 이루어 부분적인 심판을 한다. 1999년 12월 7일(음)은 마지막 심판일이다.

통일교 문선명은 세례요한 격이고, 나 「민석」을 위해 외치는 자요, 전하는 자요, 하나님 아들이 한국에 재림함을 알리는 증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에게 10계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13세부터 56세까지 남자는 정관수술을 하라. ② 생후 10개월된 남자는 거세하라. ③ 12층 건물은 개인소유로 인정치 않는다. ④ 고층건물은 신축할 수 없다. ⑤ 각국의 수도와 서울 인구는 5백만명 이상은 불허한다. ⑥ 어떤 행사든 한 장소에 14만 4천명 이상 모임을 불허한다. ⑦ 핵무기를 버리고 각국은 국방비를 10분 1로 삭감하고 잔액은 복지사업을 하라(생도궁 건설) ⑧ 교회, 성당, 사찰은 교육기관으로 대치하고 예배장소는 가정에서 하되 동편 방에서 한다. ⑨ 주일을 예배로 드리지 말고 매월 1일 7시에 생도궁에서 방송한다. ⑩ 모든 가정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구비치 못하면 생도궁에서 배급한다.(예배인도 중계)

만교통화교의 심판 대상자는 종교와 과학을 도와주는 종교인과 과학자, 민석의 예언을 순종치 않는 자, 민석을 반대하는 자는 사망에 이를 것이다.

특히 이들의 현금강요 수법은 계명을 빙자 금품을 바치도록 유도하고, 생명의 사이클(금반지)을 바치도록 한다. (금 10~5돈 등) 또 여신도 중에 공주로 임명하고 공주관 칭호금품을 씌워준다고 유도하여 (금 20돈 정도)바치게 한 후 공주관을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주에게 38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소위 심판대왕으로 자처한 민석 그리스도는 신도들의 금품사취죄로 교도소에서 쉬고(?)있는 중이다.

3. 물몬교(말일 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물몬교는 최근 전국 중요 도시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미혹해서 물몬교 교리 선전에 광분하고 있어서 각 교회 학생회가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포교 성장은 매년 1만 5천여명의 신도가 늘어가고 있으며, 물몬교 주장은 5만명으로 주장하고 있다.

물몬교의 중요교리를 소개하면, 다친교이며 삼위 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과 요셉 스미스를 동격으로 믿고 있다.

아담을 하나님이라고, 대천사장으로 믿고 있으며, 예수님은 처를 3명 두었다고 한다. (예, 마리아,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와의 결혼을 주장함).

일부 다처주의를 찬송하고 있다. 동교의 1대교주 요셉 스미스는 처가 50명이며, 2대교주 브리강 영은 처가 27명에 56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한다.

아담의 죄는 필요했고, 하나님도 한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요셉 스미스(1대교주)를 통해 구원받는다 고 했다.

그 예로 ① 믿음, 침례, 선행을 통해서 구원 받으며, ② 죽은 자도 대리로 침례받으면 구원을 받고, ③ 천국은 해, 달, 별(일월성) 3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천국(별)은 복음을 거절한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며, 둘째 천국(달)은 물몬교리를 부인한 기독교인들을 비롯 다른 종교인들이 있는 곳, 그리고 셋째 천국(해)은 즉 하나님 왕국, 물몬교도들이 들어갈 곳이다.

천국에 가셔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조상들에게 대신 침례를 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

완전한 진리는 하나님의 왕국 물몬교 외엔 없다고 주장하고, 부모는 자녀가 8세가 되면 침례와 안수를 받게 해야 한다.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있지 못하거나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교회에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특히 물몬교 신전결혼을 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결혼은 영원 결혼과 시간적 결혼으로 구분한다.

영원결혼은 물몬교 신전(성소)에서 결혼함을 말하고, 시간적 결혼은 물몬교 즉 신전 밖에서 결혼함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성경보다도 물몬경을 복음으로 믿고 있다.

4. 한국 예수교 천국복음 전도회

한국 예수교 천국복음 전도회는 1971년 1월 17일 교조 구인회에 의해 새마를 전도회관 명칭으로 경기도 부천시 삼거리에서 창설되었다.

교조 구인회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1973년 11월 10일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되어 멸망하므로 지상천국 후보 예정지인 과천면 막제리 청계산으로 피난을 가야된다고 하면서 신도들에게 천국행표를 팔아 치부 축재를 하였다.

그러나 심판의 예언이 빗나가고 이탈 신도들이 늘어나자 그 명칭을 천국복음 전도회로 고치고 서울 강남구 양재동 127-1에 초막절이란 간판을 붙이고 만병통치, 만사형통, 소원성취를 내세워 무지한 부녀자와 난치병 환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1976년 2월 29일 사이비 종교 일제 단속망에 걸려 옥중에서 사망하게 되자 교주 밑에 있던 열 두 사도와 열 두 천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제각기 행상등을 하면서 교세를 이어갔으며, 마산파(교주 최종일)와 초막절로 분열되었다.

최종일에 의해 이어가는 동 집단은 기성교회 목사, 신부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매도해 버리면서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태극기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신앙 대상화 하고 있다.

현실 사회와 기성교회는 머지않아 백근짜리 우박을 내려 파멸시키게 하며 자기비들은 지상천국을 세워 500~3,000년간 살게되고 고통 근심이 없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여 사랑, 희락, 화평 속에서 영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집단의 조직은 교주→사도→선지자→교사→성도등의 계급으로 되어 있고 천국에 약 24개의 지관이 있으며 교세는 약 1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 집단의 주요 주장을 보면 ① 하나님의 형상인 태극기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십자가)과 석가(부처)에게 경배하고 세계종파는 멸망한다. ② 만왕의 왕인 재림예수(구인회 교조)를 영접치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받고 회롱하는 모든 목사 신부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③ 예수의 성탄절은 음력 2월 27일이다. ④ 예수의 부활절은 음력 1월 17일이다. ⑤ 지상 천국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제리 청계산 일대에 이루어진다. ⑥ 구인회 교조가 육체를 쓰고 한국 땅에 온 재림 예수이므로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⑦ 신앙촌의 박태선 교주는 재림예수 구인회를 증거하기 위한 세례요한의 자격으로 나타났다. ⑧ 한국교회 목사, 신부들은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며, 소나 돼지보다 못한 자들이다. ⑨ 재림예수(구인회)가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부활승천하여 일곱날의 빛이 되어 소돔과 고모라성보다 더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을 심판하려 올 시간이 임박하였음을 여호와와 선지자 최종일이 경고하러 왔

다는 것이다. ⑩ 재림예수(구인파)만이 천당행 표를 팔 자격이 있다. 이 천국표를 사면 육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⑪ 심판의 방법은 백근짜리 우박을 소낙비 퍼붓듯이 하여 이 세상을 심판 멸망시킨다는 것이다.

■ 맺는말

지금까지 4개의 사이비 종교집단을 교리적 측면, 사이비성, 그리고 활동상황을 개괄적으로 밝혔다.

한결같이 이들은 교주 자신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 자처하고 있으며, 자기들만이 구세주인양 선량한 교인들을 포섭하고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

특히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뒤흔들고, 자기들이 손수 만든 교리 혹은 계명

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포교활동, 불법 현금 수탈에 집요하게 이용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런 부류의 사이비 집단들이 없어지지 않아 교계는 물론 사회정화적 차원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성경교육에 충실하여 사이비 이단교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며, 건전한 교회생활, 기도생활을 통하여 심오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말세가 가까와 올수록 예수님을 빙자한 악한 영들의 횡포는 더욱 가중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바른 지혜와 능력을 키우는 일에 생활의 패턴을 잡아야 할 것 같다.



각종 기념타올 특수주문전문

송월타올 서울영업부

대표 최 대 원 집사

(종로5가 동대문극장 정문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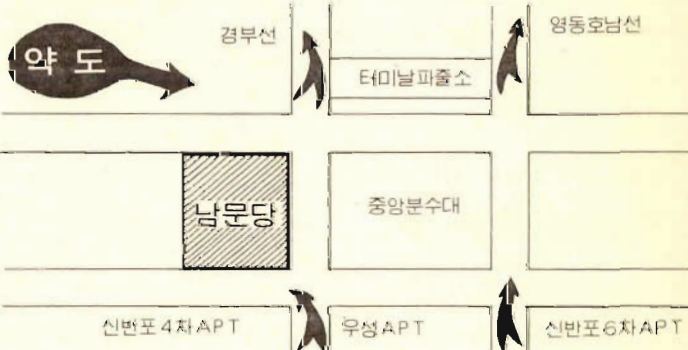
☎ 266-7715, 269-7715 (경북상사)

☎ 269-0026 (보자기공장)

창업 48년의 신용
남 문 당

금·은
시 계

金 正 泰 집사



터미널 강남지하상가 (중앙분수대) 599-3776, 593-0192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윤 두 한 장로

(본 교회 명예장로)

어떻게 하면 바로 죽고 어떻게 하면 바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과제이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죽고 사는 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심치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바이나 우리들은 이 말씀 그대로 믿어서 걱정이 되지 않아야 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루도 몇 번씩이나 자기 마음이 분리되는지, 플라톤은 인생을 선과 악을 리어카에 싣고 가는 형상이라 말하였다. 우리의 한쪽 마음은 말씀 그대로 직행하려 하나 한쪽 마음은 대강대강 하지, 성인도 시속은 따르라 하였는데 하는 묘한 융통성을 제시한다. 이것이 인생을 지옥으로 전락시키는 시험이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악과 싸워 나가는 길 밖에 도리가 없다. 불안전하지만 최선을 다할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1. 불신자와 다름없는 신자

예수님께서서는 불신자들의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셨다. 요 5 : 28-29에 이르기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고 했다. 예수님께서서는 불신자들이 죽으므로 형벌이 끝난 것이 아니고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형벌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셨다. (계 20 : 12-15)

현대인의 특징은 양심가책이 없다는 것인데 지옥은 양심고민, 실망, 눈물, 미(齒)를 갈 등의 광명에 반대한 범죄로 극형을 받는 곳이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라(막 9 : 48) 하였다.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세늘하게 하

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눅 16 : 22-24)하였다. 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한두해, 몇 십년 받은 것도 두렵고 떨리는데 영원히 기한없이 받는다 하니 생각만 하여도 몸이 오그라질 지경이다.

그런데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자라 하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다. 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건만 어찌하여 그렇게 안심이 되는지 모를 일이다. 불안하고 마음이 아파 참기 어려워져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않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예사로 믿기에 초조함이 없는 것이다. 물론 신앙의 척도는 본인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년간 신앙의 세계와 현실생활의 이율배반적 모순된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남의 신앙도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느냐에 따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부패하였기에(롬 5 : 12) 물질생활이 만족되면 신앙생활도 피상적으로나마 잠시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이 궁핍하면 이 신앙은 흔들리고 만다. 그러기에 신앙의 토대가 하나님에게 의지하는데 있지 않고 현실 육적생활에 매달려 있으며 이것은 상하게급을 딱론하고 질게 물들어 있다. 물질이 부요하고 자녀손이 많고, 하는 사업이 화려하고, 또 그의 관직이 높고, 외형이 웅화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 반면에 아무리 신앙이 독실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여도 재물이 유족하지 못하면 그를 멸시하며 그는 인기가 없다. 국가와 민족을 팔고 가문을 팔아서라도 끌어모은 불의의 재물이라도 많이 있으면 신자이고 누구나 거기에는 배당한 관심과 흥미가 있고 아침을 떨며 칭송하며 가까이 한다. 그러니 신앙의 가치판단이 회미하여진 것이다. 불신자도 신자도 돈, 돈이면 그만이다. 일단 악의 뿌려 재 돈이라(딤후 6 : 10) 하였는데 실로 신앙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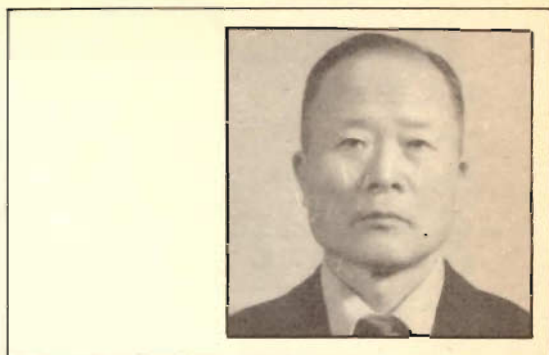
가 가장 강하게 다가온 것이다.

이 경향은 일제부터 해방후에 계속되어 오는 중
현재에는 수습하기 불가능한 고질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질타와 채찍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와 회
생이 없이는 죽을 수 밖에 없다. 소위 개혁과 정통
신학을 자처하는 저 사특하고 음흉한 일대 대이단
집단인 통일교의 초청에 참여한 사실은 아직도 귀에
새롭다. 종교지도자라 하는 인사들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얼마나 아부하며 타협하는가, 독실한 신자인
채 하면서 외식하는 꼴이란 보기에 역겹다. 암연염
기불선하여 이저기선하나 여견기패간연(暗然掩其不
善以著其善 如見其肺肝然)이란 말이 있다. 가만히
그 선하지 못함을 덮어서 그 선한 것을 나타내려 하
나 그의 폐와 간을 들여다 보는 것과 같다. 즉, 아
무리 외식해 보았자 그 정체가 드러나 수욕을 당
한다는 것이다. 만물보다 거짓이고 심히 부패한 것
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
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렘17:10) 어찌 거짓이 숨
기우며 죄를 감출 수 있느랴 죄의 삶은 사망이라
(롬6:23) 빈자나 부자나 유식자나 무식자나 왕후
장상(王侯將相)이라도 진정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 세상 속에서 존대받는 자 천국과는 거리가 멀 것
이다.

2. 신자-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여야 살 수 있을까, 위에도 말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은혜와 단장(斷腸)의 회개가 없이는 다시
살 길이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에 도달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의 만
물창조로 자연계시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
며 하나님의 말씀(성경)인 특별계시에 의하여 하나
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믿어야 하
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우선 말씀을 잘 깨달아 알며 지켜야 하겠다. 말



씀을 잘 아는데는 말씀을 항상 상고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말씀이 잘 영
해(靈解)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님의 긍휼입을 때
까지는 자기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알고 애쓰는
수밖에 없다. 성령 감동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잘 풀이해 놓은 선배들의 주석이란 것이 있으
니 이것을 보며 철저하게 알 수 있도록 개척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나
우리가 겸손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
다. 우리는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책이 범람하여서 어느 책을 보아야
할지 다 보는 도리는 없는 것이고 시간 낭비니 가장
말씀을 잘 증거하며 주석한 책을 골라서 보아야 할
것이다. 보수전영에는 기독교 서적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나 이제는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포화상태이다. 또 외국의 유명한 신자들의 책이 우
리말로 번역되어 많이 나와 있다. 질적으로 우수한
책이면 한 사람의 것만 있어도 좋은 것이다. 여러 사람의
비슷한 내용의 것이 많이 있어도 역시 시간낭비이
다. 어느 유명한 신자는 말하기를 내 책이 혹 내가
죽은 후에 발간되더라도 잘 팔린다 하여 자주 발간
하지 말라 하였다. 여러 해를 지나 봐야 참 이책이
필요한지 않는지 알 것이고 구하기 어려워 많은 사
람이 고대할 때 먹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자기가 사는 동안 부득이 몇권만 팔간이 되었고 죽
은 후에 20몇권 정도의 전집을 그의 제자들이 편집
하였으나 자주 발간하지 않았기에 구하기 어려웠고
또 구하기만 하면 그렇게 열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들이마시듯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하다.

토마스 카알라일의「영웅숭배론」, 빅토르 위고의「레
미제라블」 같은 책이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하겠다.
사회의 일간신문만 하더라도 지면을 확장하였다

하여 장황하게 논설을 늘어 놓으나 이런 것은 전문 단행본을 이용할 것이고 또 모르긴 하지만 일반대중이 몇 퍼센트 독해가 되는지 모를 일이며 정성껏 써 놓은 글이 입을 사이도 없고 해득이 안되어 휴지가 되기 쉽다. 또 광고난이 많아서 신문사의 경제적

물질이 부요하고, 자녀손이 많고, 하는 사업이 화려하고, 또 그의 관직이 높고, 외형이 웅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 반면에 아무리 신앙이 독실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여도 재물이 유족하지 못하면 그를 멸시하며 그는 인기가 없다. 국가와 민족을 팔고 가문을 팔아서라도 굶어모은 불의의 재물이라도 많이 있으면 신자이고 누구나 거기에는 비상한 관심과 흥미가 있고 아침을 떨며 칭송하며 가까이 한다.

수지는 맞출지 모르지만 독자의 부담만 많아진다. 신문은 어디까지 신문이니 시사기사와 새소식을 미리 행편되는 대로 알려주면 될 것이다. 마치 부수가 많아야 문명국의 위신이 서고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착각은 피해야 할 것이다. 민중을 위하여 공신력을 다하며 남의 지식의 과장선전은 신자의 고려해야 될 문제이며 오히려 신앙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그리고 신자는 먼저 개개인의 영육간 생활 간소화가 되어야 하겠다. 먼저 육신의 환경부터 실행해야 되니 상주하는 가옥은 가족에 비하여 너무 넓으면 그것을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과 부단한 배려가, 필요하며 옷과 신발까지도 적당히 가지지 않으면 그 손질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며 정신적 부담이 클 것이다. 이러한 허구허영의 생활을 하자면 물질적 수입이 많아야 하니 비정상적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움켜쥐어야 하고 이러다 보면 물욕탐심이 일어난다. 여러가지 의욕지 못한 사고가 주반되는 것이다. 이러는 중에 결국 자기도 모르게 신앙은 후퇴하고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하고 혹은 내용이나 실력도 없으면서 호언장담하여 사람을 속이고 자신과 하나님까지도 속이게 된다. 신앙은 말뿐이고 사업에만 치중하게 되고 만다. 신자는 특히 영육간의 행사에 간소화가 필

요하며 이것은 신앙의 조건이다.

한 나라의 정부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기관을 많이 만들어 자기 사람을 많이 채용하여 자기세력을 구축하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는 것보다 자기들의 모임을 유지하는데 더 광분한다. 오늘날 정부에서는 비슷한 기관을 통폐합하며 국책회사나 민간회사들도 이것을 장려하고 있다.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 기관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것을 유지하느라 골몰하여 고심하다 보면 신앙에는 등한해진다 아니 할 수 없다. 교회는 신앙이 본분이고 사업은 제이적이 되어야 하겠다.

신자는 먼저 자기자신이 완전하여 어려운 일에도 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완전한 공동일치는 자기완성에 있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저명한 인사의 예를 들어 선행을 권유하듯이 나는 이러하게 하고 있다는 가장 진실한 자기간증이 가장 좋은 감동과 인상을 주는 것이다.

개인, 교회, 사회, 민족과 세계가 참 살 수 있는 길은 먼저 각자가 심령적으로 재생되는 것이며 참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할 때 비로소 만사가 해결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신앙중심의 중생이 되며 양심인이 되어 신앙과 생활이 말과 행동에 일치되어야 하며 이기주의, 지방색, 파당심, 명예욕, 재물욕, 인기주의 등을 말끔히 씻고 책임과 의무감에 불타며 우월이나 열등감의 노예가 되지 말고 교만과 시기를 전적으로 버릴 것, 악에게 아부하지 말고 의분에 불타며 개인성을 무한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사회성에 이바지하여 적재적소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킬 것 가정, 교회, 사회와 세계에서 항상 하나님과 빛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것. 죄와 불의의 세력이 두려워 도피하지 말며 타협하지 말고 순수 자아희생의 그리스도의 길과 방법만을 채택할 것, 이와 같이 하여 불신과 불의의 원수들도 내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어야 할 것, 이런 참사람들이 무언중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신앙중심으로 아가페의 경합을 하여 교회와 사회, 민족과 세계에 적극적이며 영구적인 감화를 끼쳐야 하겠다.

우리의 지도자는 개인심령이 완전히 개조된 진정한 신자만을 대표들로 추대할 것이며 지방색과 파당색, 교권, 명예, 재물등의 욕심이 있는 엉터리나 종교브로커는 일체 세우지 말지며 그 책임자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윤번식이나 혹은 주침으로 공평무사히 엄선할 것, 그리하여 책임을 이행치 못한 자는

일체 제선을 금하여야 한다. 성경 신앙과 기도중심의 순복음적인 교회를 건설하며 빈자와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해야 한다. 이같이 하여 참 삶을 증거로 보여주는 생명적인 교회가 되어 여하한 사회죄나 개인죄라도 발동지 못하게 할지며 죄짓고서는 살 수 없는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가에서는 주로 신앙인과 양심자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불신양인과 모략자들이 감투쓰게 되니 안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교회학교와 기관들을 전적으로 개혁하여 일부 모임의 명예욕, 직장, 사업욕, 자아와 자파세력의 부식장소로 일체 삼지 말며 신앙적 영적과 학적인 권위가 있는 것들로 개혁하여 진짜 복음을 강력히 실천 추진시키는 교육과 기관이 되기 위하여 실사회와 불가분리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병원, 사회사업과 같은 인간행복에 공헌하는 봉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신앙과 생활이 서로 조화되며 전 백성이 복음혜택을 영유적으로 받도록 할 것이며 백성들은 봉사사업을 자진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가정, 사회, 교회와 학교는 참사람 양성의 모태가 될 것이며 신앙학문과 인격이 구비된 빛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와 사회, 민족과 세계를 움직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그리스도인 지도자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오늘날은 초 스피드시대다. 무엇을 고안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척 빠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근간에 와서 그 현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말도 소문도 별로 없는 사이에 엄청난게 큰 일을 해놓고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진행해 나가는데도 속도가 빠르다. 이것은 참으로 믿음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종교계 전체를 말하지 않고 우리 개혁과 교계만 언급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자 해놓고 회의를 거듭하고 분주다사하게 돌아다니니 여러 해를 보내면서 결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과 물질 낭비만 한다 각자위대장군(各自爲大將軍)으로 잘났다 자처하는 자가 많으며 서로가 자기의 이익과 권위를 최대한으로 요구하려는데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제일 맞는 일이면 사람의 체면과 교과를 초월하여 진지하게 의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

이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불신사회 지도자보다 앞의 장래사를 더 예민하게 더 정확하게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통찰력이 없이는 항상 사회인에게 뒤

신자는 특히 영육간의 행사에 간소화가 필요하며 이것은 신앙의 조건이다. 한 나라의 정부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정부에서는 비슷한 기관을 통폐합하며 국책회사나 민간회사등도 이것을 장려하고 있다.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 기관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것을 유지하느라 골몰하여 고심하다 보면 신앙에는 등한해진다. 아니 할 수 없다. 교회는 신앙이 본분이고 사업은 제 2차적이 되어야 하겠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인이 먼저 해놓으면 겨우 뒤늦게 깨달아 추종하거나 사후약방문(死後藥房間)적으로 못마땅하여 중언부언한다.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아무 능력도 노력도 없으면서 저기는 싫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 말로 해치운다. 자기의 무능을 덮어두고 남의 노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내세워서 자기는 숨으려 한다.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열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지혜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사회의 부조리도 부패도 교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리스도인 지도자에게 구령사업과 인간화평의 평화사업을 위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앙, 힘, 지혜의 부족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같은 교회끼리 같은 교우끼리는 호언장담하고 잘난체 하면서도 외부에 가서는 감히 말도 못하는 것이다. 가급적 지도자는 내유외강(內柔外剛)하여 집에서나, 교회 안에서는 부드럽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행동하며 외부에 가서는 정당하게 조리정연하게 발언하여 옳은 일에는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믿는 자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며 이 말이 나 개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

28년의 반성

이 형 수

9월 첫주일로 우리 교회는 교회설립 28년을 맞게 된다.

28년동안 오늘의 충현교회로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교회에서의 충현교회의 위치, 나아가 세계교회 속에서의 충현교회로 발돋움하는 오늘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와 두려움이 앞서는 것을 느낀다. 지나온 28년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살펴 볼 때 오늘의 충현교회가 있기까지는 당회장 목사님의 영력있는 설교와 건실한 당회, 순종 잘하는 교인들이 있음을 지적할 수가 있고 이것은 어느 개인보다도 충현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잘 입증하는 역사적인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교회내외에서 한국의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 문제들을 잘 알고 이야기하는지 놀랄 정도이다. 우리 모두가 공감의 벽을 쌓으며 상패하게, 혹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제기된 문제 가운데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거나 않은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충현교회 초창기에 주일학교에서 배우던 사람이 이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까지 이르러 있다. 각자가 스스로 평가를 해 보면 자명한 일이다. 과연 나는 현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고. 어느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천국 일꾼을 키우는 것일진대 과연 이런 천국 일꾼을 키워내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계속 숫자경쟁만 일삼고 있지 않는지, 단 한명의 진실한 크리스찬을 통해서 세계사를 변혁시킨 주님께서 오늘도 엉터리 다수보다 진정한 한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자. 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 주의 나라와

(새 532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1절)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도다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2절)

찬송하리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28년 전 충무로 한 모퉁이에 주님의 피로 사신 「충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케 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마16:16)이라고 고백한 시몬 베드로의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마16:18참조)고 약속하시고 “몸된 교회를”(골1:24) 이 땅위에 무수히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신앙고백 위에 능력있는 종 김창인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 많은 중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돌보게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지금은 새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어찌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어찌 “주 계신 성전과 피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1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교회는 천성과 같다” 하느니라 시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느니라 시인은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2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을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하나님께 그저 찬송할 뿐이다.

이 찬송은 예일대학의 총장을 22년간(1795-1817) 지낸바 있는 트와이트(Tiruotuy Dwigut)목사가 작시한 것으로 미국 찬송가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목사며 시인이로서 교육, 정치, 편집, 사업등 놀라운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33편의 찬송을 작시했으나 이 찬송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찬송은 아론·윌리엄스(Aron William's)의 유니버설 찬송가 제2탄에 실려 있는 홀본(Holborn)곡 16행중 한 부분이다.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3:15)임을 기억하며 “울면서 기도 늘 하며 힘쓰고 애쓰자”!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8월중 들어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참고서

- 1) 성서백과대사전 : 성서교재간행사, 1981, 906P. 26cm. V. 6.
- 2) 성서대백과사전 : 정인찬편. 기독교회사, 1981, 937P. 26cm.
- 3) 기독교대백과사전 : 기독교문사간, 1981, 기라다림~대회향. 1288P. 26cm

2. 기독교윤리

- 1) 영원한보증 : 바커, 하롤드저. 권달천편. 생명의말씀사, 1979, 259P. 20cm
- 2) 은혜생활 : 쿡, 조셉저. 홍성국역, 생명의말씀사, 1980, 286P.
- 3) 행복은 가족과 함께 : 북크, 로이스, 워킹, 미지공저. 보이스사, 1980.
- 4) 엄마가 되실 분에게 : 브렌너먼, 헨렌 공저. 조영실역. 보이스사, 1981.

3. 교회음악

- 1) 교회음악사 : 이종기편저, 김의환감수. 세종문화사, 1980, 232P.
- 2) 성가지휘법 : 트로우브리지, 존·비저. 문덕준역. 예민문화사, 1981, 113P.
- 3) 찬양의 능력 : 캐로더스, 머린저. 이용태역. 예수교문서선교회, 1980, 208P.
- 4) 교회학교음악. 레크레이션 : 김두완, 이창식 공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0, 76P.
- 5) 복음찬송과 율동 : 이호문, 윤신자공저. 초석출판사, 1981, 187P.
- 6) 레크레이션 : 이요섭, 신동우공저. 서울음악사, 1981, 192P.
- 7) 노래와 율동모음 : 나하나저.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0, 174P.

4. 기독교교육

- 1) 주일학교 창작활동 : 한치민저. 평화사, 1981.
- 2) 교회학교 창작활동집 : 박경심저. 보이스사,

□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
.....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아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
.....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
.....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
.....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
.....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
.....도에서 우리는 전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충현」편집실.....

◇ 책소개 ◇

제시켄 루이스 저 이장우 옮김

육의 신앙

충현출판사, 252페이지, 2500원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 우리에게만 좁혀진 환난이 닥쳐들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성도의 환란의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육기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에 출간된 제시켄 루이스의 「육의 신앙」이란 책은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다.

김희보 목사님도 이 책의 서문에서 80년전 영국에서 출판된 후 계속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 판을 거듭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감동을 주는 책으로 학문적인 연구라기 보다는 오히려 마음에서 마음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달되는 깊은 영적 묵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을 또한 충현성경연구원의 전교인성경공부 강좌중 김희보 목사님의 육기강의에서 부교재로 채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리라 생각된다.

칼빈주의 기독관 ②

김 하 진 목사

(섬가부지도)

2.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하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마 1:18; 눅 1:26-38) 성경이 동정녀 탄생을 말하기 때문에 초대 교회가 이 진리를 믿었고 또 고백했다. 사도신경에서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하고 있다. 사도시대 이후 역사적인 기독교에서는 신·구교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 왔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벨직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교리를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고 또 중대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지 아니하시고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가 구주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된다. 구주가 될 수 있는 자격자는 자신이 범죄한 죄도 없어야 하는 동시에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원죄도 없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원죄와 관계없이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 깨끗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신 것이다. 구약 시대에도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흠이 없는 양을 잡아 드렸는데 이 양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요 1:29)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믿지 않는 것은 ①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이며, ② 자연법칙에 맞지 않고, ③ 비과학적이며, ④ 현대의 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든다. 그들은 또 말하기를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 타락의 역사가 오랜 원시시대의 신화였다면 동정녀 탄생 교리는 20세기 신화라는 것이다. 아마 기독교 역사 이래 이 동정녀 탄생처럼 공격을 많이 받은 교리는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기독교는 출발 당시부터 자연법칙에 기반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초자연법칙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자연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같은 초자연적 법칙을 자연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다.

끝으로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는다. ① 성경이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다. (사 7:13;

마 1:18) ② 마리아 본인이 증거하였다. (눅 1:34) ③ 요셉은 자신이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이 사실을 놓고 고민했다. 이것은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한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3.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부활한 뿐 아니라 3일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민 12:40) 그리고 부활의 원리도 말씀하셨다. (마 16:21; 막 8:31; 눅 9:22; 마 17:9-23; 막 9:9-10)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한대로 사흘만에 부활한 것을 지적했다 (고후 15:4)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 (삼상 30:12; 왕하 20:5, 8, 레 7:17-18; 호 6:2; 요 1:17)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만에 부활한 사실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예언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고, 둘째는 구약시대 안식일을 신약시대에 와서 주의 날로 완성시키기 위함이다. (골 2:16-17)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예언의 성취요 우리의 구원에 중대한 의의를 가졌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부활을 전할 때 언제나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행 2:32; 3:15; 5:32; 10:39; 13:31-32; 26:16)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보다 윤리, 도덕을 통한 사회 개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다음의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절설

이 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잠깐 기절했는데 무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의식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당시 로마법은 처형당한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장례를 못하게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죽은 것을 확인까지 했기 때문이다. (요 19 : 33-34)

2) 도난설

이 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동안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해 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 각기 옛 직업을 찾아 갔던 것이다. 그리고 숨어 있고 도망다니는 겁쟁이들이었다. 무덤에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훔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제

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난 후이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해 숨겨두고 거짓 부활을 증거했다면 어떻게 후에 제자들이 거짓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었겠는가?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으며 순교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이다.

3) 환상설

이 환상설에는 자유주의·신학자들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주관설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설이다.

주관설에서의 주장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중에 주관적으로 느낀 것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객관세계

의 사실로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환상설이 잘못된 것은 환상의 특징은 어떤 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인데도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고 오백여 형제가 같은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고전 15 : 6)

이 밖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막 16 : 9; 요 20 : 11-18; 마 28 : 9-10), ② 클로바와 그의 동행인에게 (눅 24 : 13-35), ③ 시몬에게 (눅 24 : 34; 고전 15 : 15), ④ 제자들에게 (요 20 : 19-23; 24-29; 21 : 1-14), ⑤ 갈릴리 산에서 (마 28 : 16-20), ⑥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고전 15 : 7), ⑦ 감람산에서 열 한 제자에게 (행 1 : 4-11; 눅 24 : 50-51), ⑧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행 9 : 3-7 ; 22 : 6-10; 26 : 12-18; 고전 9 : 1; 15 : 8) 등이다.



특허 제17807호
제75332호
제62131호

■ 야자수미니정수기수질검사표 ■

(서울시립위생연구소 77-1553호)

성분	사용전	사용후
일반생균수m/ℓ	2,700	80
대장균	양성	음성
영양염소	7.1	14.2
질산성질소	0.3	1.0
암모니아수질소	검출	불검출
잔류염소	음양부적	음양적

株式會社 韓通 영업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56 삼흥빌딩
(794) 8331 · (793) 2944

새롭고 혁신적인

야자수 미니 정수기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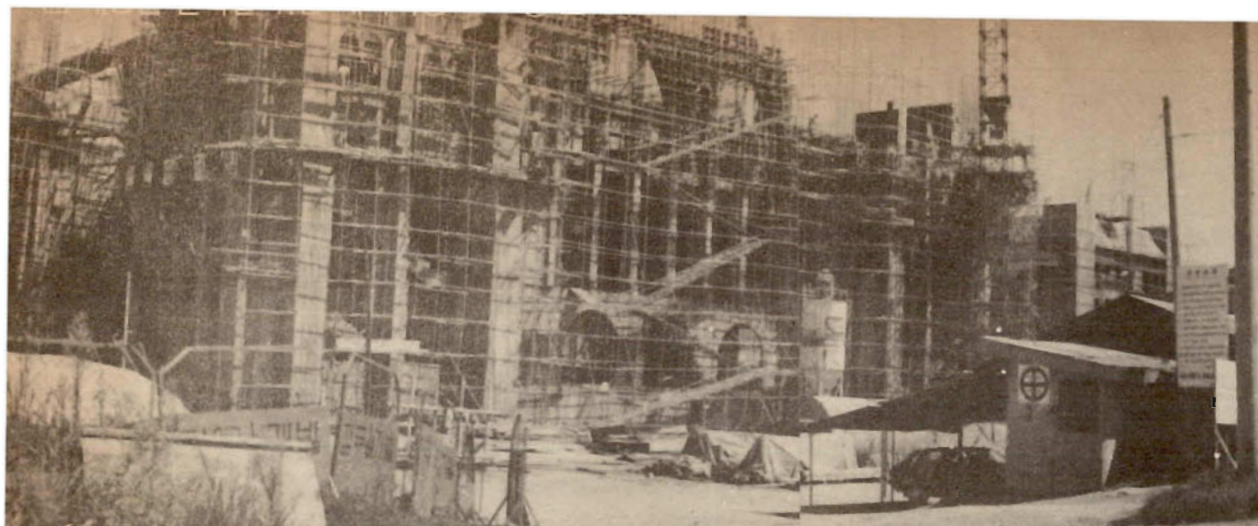
- ◎ 센물을 단물로 만듭니다.
- ◎ 대장균, 일반생균 제거
- 물속의 유기물 흡착, 방사능 물질, 녹물, 냄새, 철분, 염소, 기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수질에 따라 약 2. 3개월에 1회 교환함.

■ 판매처 ■

수출 및 백화점 유명약국, 슈퍼마켓에서 판매중.

소비자가격 1,000 원



〈8월 15일 현재 공사 진행상황—본당 외부〉

보다 나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 환 집사

〈새성전 건축현장 감독〉

20일째 되는 날, 1981년 1월 25일 주일이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잡하고 부산한 가운데 몇백명이 안되는 서울 총현성전의 성도님들의 경건한 예배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지 몰라서 영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 전화를 하니 옥스포드가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택시로 가야 한인교회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 일행은 예배를 드린 후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 런던 박물관으로 갔다.

박물관은 웅장하게 건축되었으며 건축 양식은 그리이스식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신전같은 감을 주었으며 기둥은 그리스의 아이오닉(Ionic)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내부에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나 중국 문명이나, 로마문명등이 많

어 소개되었고 특히 할 만한 것은 이집트 문명중 사람이 죽은 것을 미이라칠을 한 관이 그대로 보전이 되었는데 1천년 이상의 사람 모양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었다.

영국의 큰 건물들은 건물이 오래되고 보수하거나 외관청소를 잘 하지 않아서 그런지 건물들이 시커멓게 물들어 있어 이를 두고 요즘 영국을 회색빛 영국(Gray British)이라 고들 하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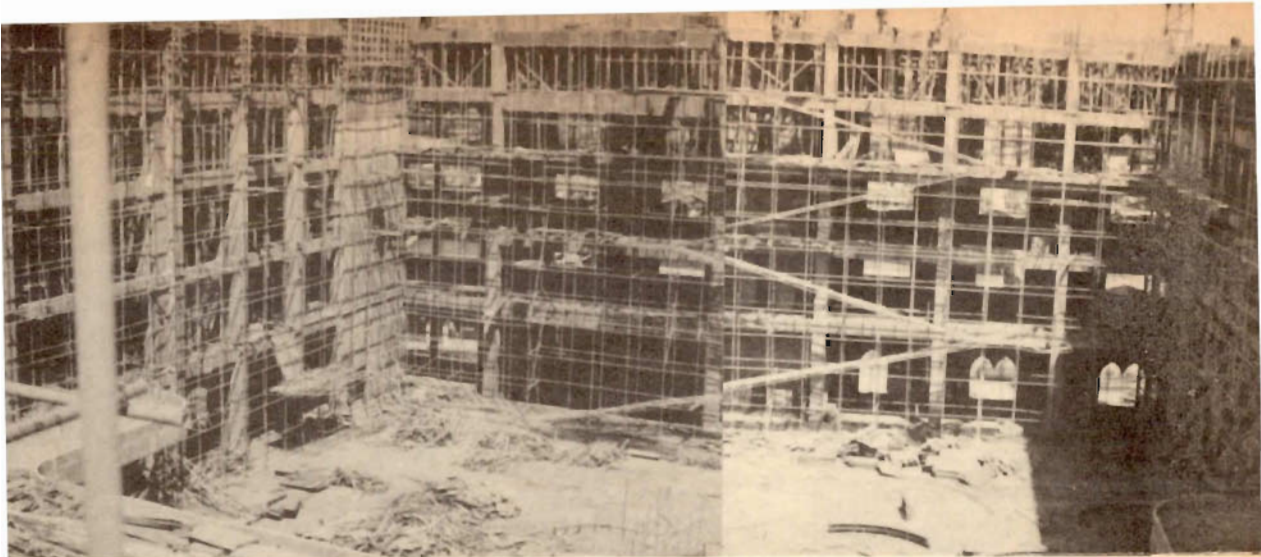
영국에서 더 머물러서 옥스포드대학(Oxford University)이나 웰스궁전등은 꼭 보고싶은 건물들이었지만 앞으로의 여행계획이 시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 독일편 □

21일째 되는 날, 오후에 독일의 쾰른으로 향하기 위하여 영국의 공항을 이륙하여 독일에 도착한 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어 도착이 됐는데 시간차는 1시간이었다.

우리 일행이 투숙한 호텔은 쾰른의 중심가 골목안에 있는 바드로프 호텔(Badroff Hotel)로 자그마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관인데 참으로 깨끗하며 호텔 투숙비도 30불 미만이었다.

22일째 되는 날, 1981년 1월 27일 아침 견학할 곳을 미리 계획을 세워 차례로 가기로 했는데 첫번째는 쾰른성당(Kolner Dom)과 크리스티 성당(Christi Auferstehung Church)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투숙하는 호텔에서 쾰른성당까지는 15분 정도 걸어서 도착했는데 이 성당은 북유럽에서는 제일 큰 성당으로 그 앞에 서서 보니 참으로 웅장하고 크게 보였다. 전체 건물 평면은 길이가 약 140m 정도이고 정면 폭이 62m 정도이며 건물 천정까지의 높이가 45m(천정 꼭지 제일 높은 부분)이고 종탑에서 뻗어나온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제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100m였으며



〈본당 내부〉

뾰족탑의 십자가 제일 높은 부분이 157m 이었다

노장로님과 나는 뾰족탑의 제일 높은 (사람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제일 높은 부분이 약 145m) 부분까지 올라가 (363 계단) 보았다.

그 밑을 내려다보니 라인강과 시내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종은 직경이 약 3 m, 높이가 3 m 정도 되어 보이는 종으로 9 개가 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성전은 1248년 이후에 건축을 시작하여 약 250년 이상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 그 건물 옆에 돌 가공공장이 있어서 계속 건물보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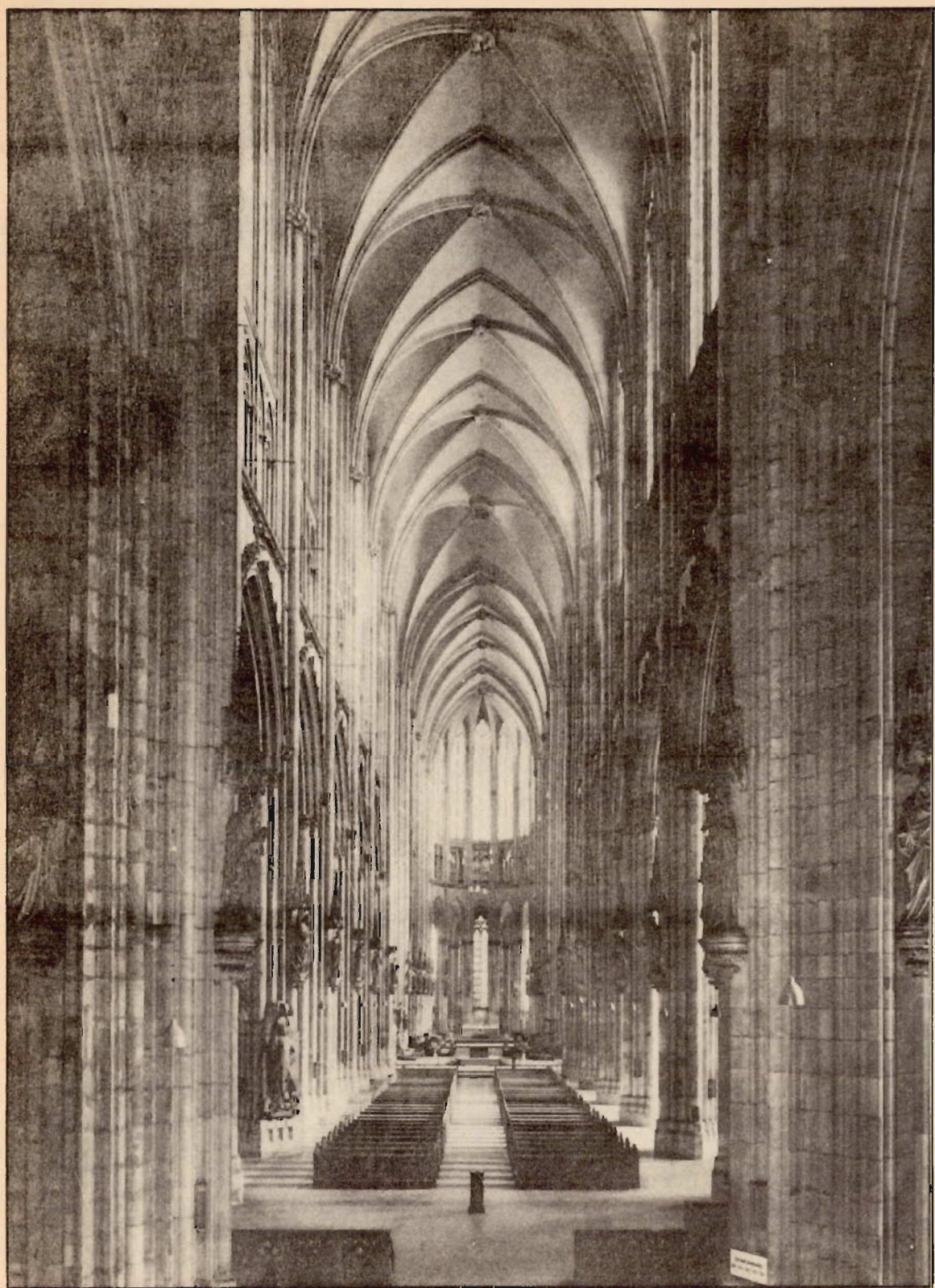
건물 정면 입구쪽에 건물에 대한 팸플렛이나, 건물의 모형도 등도 팔고 있어서 우리 일행은 몇가지를 살수가 있었다. 외부 모형의 조각이라든가, 건물의 돌을 붙인 부분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밀한지 우리 몸에 장식하는 보석을 깎은 모양보다도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듬어서 건물의 외부나 내부가 한마디로 말해 보석 그대로였다.

종탑의 첨탑까지도 전체가 돌인데 5 백~6 백년이 지나도록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의심스러운 정도였다.

여기에 독일의 고딕건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독일은 영국보다 뒤떨어진 프랑스의 고딕을 모



〈쾰른 돔성당 전경〉



〈콜른 돔성당의 내부〉

방했다. 그 이유는 영국에서는 고딕식을 양식적으로만 생각하여 전통적인 구조에 고딕식의 장식수법을 가미했는데 독일성당은 소교구 제후 부호에 의하여 건축되어 국왕이나 대주교에 의하여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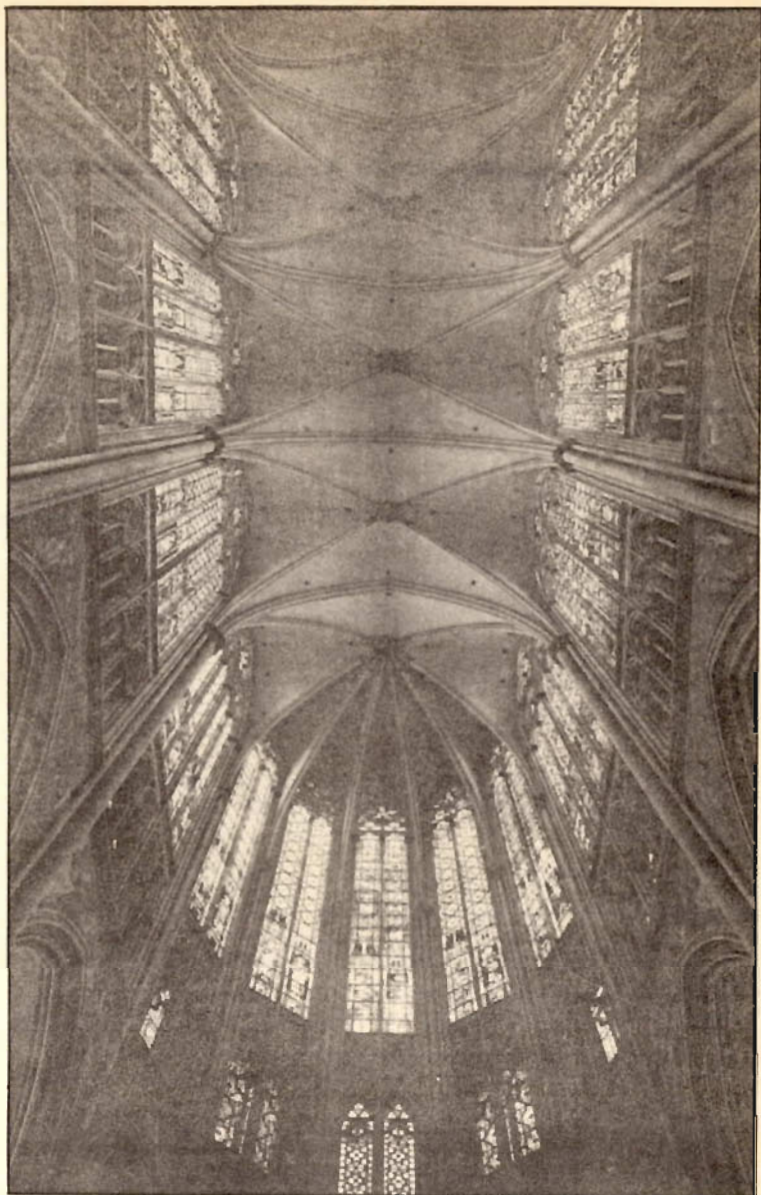
별로 대형 건물은 없었고 이 켈른 성당이 제일 큰 것 같았다.

독일 고딕은 실내구성 외관을 항상 간소하게 하여 정신주의적으로 표현을 했으나 이 돔성당만은 정신주의적인 면과 유럽의 영국 고딕에서 볼 수 없는 독일 게르만 민족의 발악적이고 환상적인 표현이 가해진 것으로 느껴졌다. 프랑스의 고딕은 수평선을 쓰지 않고 주로 수직선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독일 고딕도 측랑의 창을 침두 아치치의 높은 창으로 하여 수직감을 강조하고 쌍탑을 단일탑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겠으나 이 돔성당은 그렇지 않았다.

독일 고딕의 초기는 1300년경부터 도입되었고 아치 천정의 리브는 원형단면이고 측주의 외아의 핵주도 원형 또는 삼각형이었고 기둥의 머리부분은 자연주의적인 표현인 나뭇잎 모양이 많이 쓰여졌다. 고딕의 전성기는 1400년경이고 이때부터 고딕 스타일이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개구부에는 침두아치(뾰족아치)가 사용되며 창살모양이 3번, 4번, 6번식으로 되었다. 리브의 단면은 배모양이고 종탑부분은 크고 대규모로 올랐다.

독일 고딕의 후기는 1500년경으로 평면은 홀식 아치, 천정의 리브는 별모양, 그물모양, 부채살모양으로 전성기의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창살은 불어의 부대형으로 나타냈고 오나멘트의 나뭇잎 모양이 더욱 상징적이었다.

그러나 이 돔성당의 외형을 보면 독일고딕중에서 대규모이고 별로 찾아 볼 수 없는 형태로 내부의 천정을 보면 전성기 때의 형태를 이루었으며 창살은 불어의 부대형



〈켈른 돔성당 창문과 아치〉

으로 보아 독일고딕의 현상이었다. 그래서 이 돔성당의 전체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독일고딕의 초기, 전성기, 후기를 다 갖추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도 그 연대가 300년에서 500년 동안 건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건물을 평한다면 학계에서는 평면의 비례가 맞지 않는다는 점, 전체가 고딕의 통일

성이 없다는 점이 있으나 신령부분이 100여년 동안 건축되었고 종탑부분은 1880년에 완성이 되었으니 까 약 500년 후에 완성이 된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종탑부분은 독일 고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형태였다.

우리 일행은 돔성당의 건학을 마친 후에 택시로 약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크리스티 교회(Christi Auferstehung Church)를 가 보



《그리스티교회 전경》

았는데 건물의 외형은 초현대식으로 건축설계자 나름대로 구상하여 조형의미를 살렸으며 조경도 건물의 조형미에 맞추어서 실감나게 살렸다. 창문의 형식은 4각형에다 본당 내부와 연결된 창문에는 현대조형미술품 모자이크(Mosaic)하여 색유리(Stained Glass)를 끼었으며 자연색 그대로인 붉은 벽돌 노출쌓기)와 콘크리트 노출(Precast Concrete, Exposed Conc.)로 하여 자연미를 나타내었다. 역시 고딕식의 성당을 보고 현대식 건물을 보니 너무 단조롭고 교회기분이 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내부 역시 현대식의 조형미를 살려서 경사진 좌석, 계단식 좌석으로 편하게 예배를 볼 수 있게 설계해 놓았다.

건물의 건축은 1967~1970까지 완성된 건물로서 건물의 색채나 조경이 조용한 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켈른(독일명 Köln, 영어명 Cologne)은 아직도 전차가 다니고 있고 거리는 현대식 건물이 반, 옛날 건물

이 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독일의 쾰른은 우리나라의 수원과 비교할 수 있겠다.

우리 일행이 영국을 거쳐서 독일에 왔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영국과 독일의 여러가지를 비교할 수가 있었다.

먼저 영국에서는 택시를 탈 때 택시 미터라든가 운전기사에게 주는 팁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가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날 때 영국은 좋은 인상만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영국은 신사의 나라, 귀족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떠났다.) 영국의 길만을 본 느낌인지는 몰라도 그 나라의 궁지도 배울 수가 없을 정도로 택시 운전사는 어떻게 하든지 팁을 좀 더 받고자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고 도무지 친절할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성전이나 궁전 같은 곳을 보아도 관광으로 인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생각했던 기대와는 거리가 좀 있었다.

반면에 독일은 공항에 내릴 때부터 그리 의심하는 눈초리도 느낄

수 없었고 택시 운전사는 택시 운전사대로 자기의 할 일이 분명한 것 같았고 어느 곳에 가나 더러운 것은 볼 수 없었으며 시간관념이 너무도 철두철미한 것을 느꼈다.

한 예를 들면 택시운전사나 호텔의 종업원이 팁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일, 은행은 12시부터 2시까지 문을 걸어 두는 일, 호텔(여관, 여인숙)의 홀이나 복도 전등불은 필요시에만 점등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소등이 되도록 스위치에 타이머를 달아 놓는 일들이 너무도 철두철미해 보였다.

우리 일행은 독일에 와서 육호기 선교사님께 안부전화를 하니 육호기 목사님은 전화를 받는 즉시 달려오셔서 우리 일행을 반가이 맞아 주시며 한국인 식당에 가서 저녁을 대접해 주시면서 성전 건축내용이며 독일의 선교내용의 정답을 나누었다. 주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그 사랑은 긴 여행에서 겹친 피로를 일시에 풀어주는 것 같았다. (계속)

자 기 발 견

최 명 실

(대학부 3년)

수양회를 준비하는 임원으로서 프로그래밍 짜임새, Work book 발행, 수양회중 행사와 간식……등 여러 가지 일로 걱정하며 일을 했다. 그러나 수양회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손과 발과 머리로 일은 했지만 정작 해야 할 기도준비는 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는 “당일치기”라는 단어가 머리를 스쳤다 그동안 기도준비를 하지 못했으니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철야기도를 해야지 당일치기로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은혜 내려 주시겠지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혼자 기도원에 가서 철야기도를 하겠다면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것이 뻔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대학부 전체가 수양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철야기도가 있다고 하얏게 거짓말을 하고 교회에서 수양회 준비기도회를 마친 후 기도원 향하는 버스를 탔다. 그리고 시험을 바로 내일로 앞둔 수험생이 시험 전날 공부가 잘 되듯이 그날밤을 꼬박 새우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 다음날 기도원을 나올 때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기도 때문인지 이번 수양회가 나에게 준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수양회를 통하여 나 자신의 참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양회 둘째날 아침 강의시간이었다 목사님께서는 12가지 설문을

칠관에 쓰시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솔직히 ○, ×표로 대답해 보라고 하셨다. 그 설문 12가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나는 사랑을 받을 만큼 받고 자랐다.
2. 나는 보통 이상으로 자의식이 강하진 않다.
3. 나는 보통 이상으로 남에게 비평적은 아니다.
4. 나는 가리지 않고 가급적 친구를 많이 사귄다.
- 5.知己가 어리석은 것을 해도 화나지 않는다.
6. 나는 삶에서 받을 몫을 받고 산다.
7. 나는 신체적 정신적 정후로 피로와 할 때가 없다.
8. 나는 사람을 잘 믿는다.
9. 정치가들은 보통 이상으로 부정적하지 않을 때가 없다.
10. 나는 보통 이상으로 민감하다.
11. 나는 비웃음을 당하는 느낌을 종종 갖지 않는다.
12.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살게 굴지 않는다.

나는 아주 솔직히 그리고 자신있게 ○, ×표를 했다.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표가 5개, ×표가 7개였다. 이 결과에 대해서 나는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목사님께서 ○, ×표를 다 했느냐고 물으시면서 설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

기 시작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속의 장발장과 신부님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주셨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겠지만 장발장과 신부님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장발장은 18년간 감옥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감옥에서 나와서 여기저기 거처할 곳을 찾았으나 그의 감옥생활 경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그러나 신부님은 그러한 장발장을 맞이하여 함께 식사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식탁에는 손님을 맞이할 때만 커는 은촛대에 불을 켜다.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손님 대접을 해 준 것이다. 그리고 잠자리까지 내주었다. 그러나 자기를 믿어주고 호의까지 베푼 신부님에 대한 장발장의 태도는 신부님과 그의 가족이 잠들었을때 은촛대와 은식기를 훔쳐 가지고 도망친 것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순경에게 붙잡혀 도둑의 모습으로 다시 신부님 앞에 끌려 오게 된다. 그러나 신부님은 장발장의 그러한 배신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한번 사랑을 베푼다. 은도구들은 그가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라고 자기 물건을 훔쳐 달아난 자를 순경 앞에서 두둔한 것이다. 문창수 목사님은 아마 그 신부님은 이 설문 12가지에 전부 ○표를 칠 수 있는 사람이며 장발장은 전부 ×표를 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신부님은 복음으로 완전히 물든 분이라는 것이다. 복음으로 물들어 있다면 그 설문에 거의 ○표를 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는 놀라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나는 X표가 7개나 되지 않는가? 나는 유치부때부터 계속 천주교회를 다녔다. 그것도 그냥 다닌 것이 아니라 성가대도 했었고 학생회에서 열심히 활동했으며 여러가지 대회에 참석하여 상도 탔었다. 교회집회는 거의 95% 이상을 출석해 왔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칭찬도 받았다. 나도 또한 요즈음 내 나름대로 생활속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심도 갖고 있었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어느정도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 나는 복음으로 많이 물들어 있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에 더욱 점령되어 있다는 것인가. 그동안 나의 생활을 예수님의 생활화하려는 노력은 헛것인가. 나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다. 가슴이 답답했다.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이 되었다. 그러나 그냥 이려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의 중심에는 복음보다도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나의 이성이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활은 믿음이 풍성한 것 같았지만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 갈 때는 정말 어이없게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생활속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결론은 복음과 일치하는 것이 되어졌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이성적 판단을 해 볼 것 같으면 원수에게 복수를 하려면 치밀한 계획을 짜야하며 그리하여 거기에 따

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것을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롭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성의 판단과 복음이 결국에 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같은 점에도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은 터인지라 생활속의 행동면에 있어서는 신앙이 좋더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의 핵으로 과학적 합리적 사고는 차돌과 같이 굳어져 갔고 또 그 핵의 겉은 복음이라는 것으로 겹겹이 둘러 싸여져 간 것이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12년, 또 대학 1년의 13년간 학교의 인본주의 교육은 나의 이성을 더욱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물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사고력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되며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중심은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가 막혔지만 지금이라도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됨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나의 핵을 복음으로 바꾸어야 할텐데 그 바꾸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내머리를 가득 채웠다.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수양회 세째날, 보통때와 다름없이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 몇 달전부터 경건의 시간에 시편을 보아 왔었기 때문에 그 날도 계속해서 시편 114편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시편 114편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나의 중심을 어떻게 복음으로 대체시킬 것인가 근심하고 있는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시편 114

편과 함께 그날의 경건의 일지를 옮겨 적어 보겠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 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놀았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을 어찌이며 요단야 네가 물러감을 어찌인고. 너희 산들이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놀은 어찌인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내가 지금 내자신 즉 과학적인 합리적 이성에 의지하고 바탕으로 하는 생활속에서 나와서 복음에 기초한 생활을 할 때에 나의 몸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토가 되었다. 사탄은 이러한 나를 보고 도망하며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 뛰었다. 사탄야 네가 도망함을 어찌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야 네가 기뻐함은 어찌인고. 명실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하여라 그가 나의 굳은 마음을 변하여 복음의 못이 되게 했으며 차가운 이성으로부터 샘 솟는 기쁨을 주셨다.

이것은 염려하고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에 복음을 세워 주시겠다고 확신시켜 주신 것이었다. 그 후 그동안 기계적이고 형식적이었던 경건의 시간도 정말 하나님과 만나 그의 말씀을 듣는 기쁨에 넘치는 시간으로 다시 환원되었다.

그 다음날 (수양회 마지막날) 마지막 식사시간에 나는 문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수양회 기간중 받은 은혜를 목사님께 이야기하며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목사님께서서는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의 핵을 대체

시키는데 방법론적인 면에서 도움의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자기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일 아침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매우 감사하다.

수양회를 통하여 나는 나 자신의 밖에 나와서 나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죄사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며 이러한 나의 자기 발견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당일치기” 기도가 효과를 거두어 이렇게 큰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일까. 어떻게 나에게 기도준비를 시키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히 감사를 드린다.

여 죽은 자가 많으나 유명한 분으로는 세례 요한, 예수님, 스데반, 야고보, 베드로, 바울 등을 들 수 있다.

오늘 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 모든 문명은 행복한 삶을 추구한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행복 추구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행복이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원하는 환경, 풍부한 물질, 건강, 남에게 받는 칭찬, 높은 권력의 지위, 성공한 자녀, 현모 양처인 미모의 아내, 잘나고 똑똑하여 돈 많이 벌어드는 남편, 친척이나 친구가 다 함께 지날 때? 등이 행복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 행복이란 것의 의미와 표준을 찾고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코자 인생은 울고 웃고 또는 무표정 속에 기억없는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기쁨의 근원을 우리의 자신 속에 가지게 된다면 그 기쁨은 언제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일을 하나님의 길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 길은 단단하고 확실하며 성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행복에 있어서 마음의 평안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만 우리의 것이 된다. 구원 이외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행복이란 재정적인 저축이나 다른 종류의 이른바 안정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고는 무진장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 평안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요 평안은 하나님의 인격이요 그 인격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사랑과 평안의 중심

□ 신앙수필 □ *****

길

조 현 명 장로

(월간중현 편집위원장)

길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道路, road - 路線, 航路를 포함한다] ② 사람이 지켜나야 할 도리[道理, morality] ③ 살아가거나 일해 나아가는 방법[way, method] ④ 익숙해진 솜씨[skill] ⑤ 짐승을 잘 가르쳐서 부리기 좋게 된 버릇[tameness] ⑥ 손질을 잘하여 생기는 윤기[lustre] ⑦ 물의 깊이를 재는 단위[fathom] ⑧ 물건의 품질의 등급[等級, class] ⑨ 기타

성경에는 길이 도로로 씌어지는 외에 여행 또는 나들이의 뜻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하나님 또는 사람의 습관이나 행위 태도 등을 나타내는 말로 썼다. 신약에서는 사람이 길을 길로서 ‘의의 길’, ‘평강의 길’, ‘주의 길’, ‘하나님의 길’ 등 길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에는 ‘율법을 ‘여호와의 길’이라고 한 곳이 있는데 히브리서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십

자가로 말미암은 속죄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여시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주의 길은 진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 실로 예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라고 하셨다.

또 도(道)란 본래 도로(道路)라는 뜻이나 도로라는 것은 사람이 그에 의하여 걸어가기 위한 것으로 간다·행한다·행하기 위한 기술·방법 등의 의미가 생겨, 나아가서는 따라야 할 법칙 즉 도리(道理)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規範)·인륜(人倫)으로서 사용하여 왔으며 지방 행정 구역(地方行政區劃)의 하나(province)이기도 하다.

성경에는 도란 말이 그리스도교의 의미로 쓰였으며 이 도를 위하

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현신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불안을 조성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각각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는다. 어떤 사람은 삶에 즐거움과 재미를 첨가한 흥미진진한 보람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적 없는 삶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한 사람은 현실을 누리면서 미래를 기대하나 다른 한 사람은 계속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계속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미래에 대한 대비없이 자기 자녀들을 자기와 함께 어두움으로 인도한다. 사람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 혹은 사탄 즉 천국 혹은 지옥을 선택해야만 한다. 모든 인간은 제각기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결국 결심과 희생과 의기가 요구되는 생명의 길과 대충적이어서 많은 사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제2의 죽음의 길 두 가지 뿐이다. 생은 결정의 연속이다. 선택의 결과로 일련의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그 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세상은 대조와 멀을 수 없는 모순들로 가득찬 곳이다. 빛과 어두움, 기쁨과 슬픔, 아름다움과 추함, 사랑과 미움, 삶과 죽음들은 모두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끊임없는 투쟁이다. 우리 인생에게는 나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달래주는 분이 필요하다. 내 영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신앙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 믿음은 마음의 길이요, 생활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다. 믿음은 기도와 성경을 읽으므로 구축된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명을 가지고 찾아 오셨다.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

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십자가 밑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 믿음은 해방의 길이 열린다. 질병에서 가난에서 근심 걱정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해방인 것이다.

우리 영혼의 죄악의 거울이 지나고 구원의 봄이 오면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노래가 들린다. 기쁨이 넘친다. 세상의 근심, 걱정, 우울에 빠진 자들에게 기쁨과 평화의 길이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길이요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길이요 죄악에서 회개하고 은혜 받는 길이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피난처이며 십자가 밑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위로와 평안이 있고 새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길이 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다. 육체가 병들었고 심령이 병들어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 오셔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자 원하신다. 우리 앞에 기도의 길이 있다.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환란 중에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 입고 구원이 있다. 기도하는 생활은 절망을 해소하고 희망의 문이 열린다. 물질 문명의 암흑속에서 삶의 충실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길은 기도 생활뿐이라 하겠다. 믿음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생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매어달리게 하며 자기를 믿지 않고 인격적 무가치로 하여금 은혜를 간구하게 한다. 오늘도 확실하고 내일도 확실하며 영원토록 확실한 안정된 참된 믿음이 실망을 당한 일은 한 번도 없다. 믿고 가는 길에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새 신앙이 생긴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아름다와지고 믿음이 아름다와지고 따라서 용모까지 아름다와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선조들이 복음을 언제 받아 들였는지 알고 싶어했다. 그러나 선조들이 임진왜란 때 창평에서 평양까지 피난해 왔다가 다시 평양에서 80리 떨어진 강서 무학산 뒷산골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나의 증조부는 한학자이며 유지이며 술을 너무 많이 하셨다고 한다. 하루는 이웃 통리에 가서 만취(滿醉)되어 집으로 돌아 오다가 작은 고개 길에서 쓰러져 누워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은 술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있오' 라는 말을 듣고 거기 어디냐? 고 하니 '예수 믿으면 술을 끊을 수 있오' 라는 답에 귀가 바짝 열려 '나 그 예수 믿고 술 끊기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고 열살 넘는 손자를 업고 주일 새벽마다 아침·점심·저녁 밥을 싸가지고 40리 길 되는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주일 오기만 기다렸다는 말을 그 당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24세 때 나의 본교향의 전도사로 제쳤던 명신 홍 박사님을 통하여 전해 듣고 오래 묵은 소원이 풀렸고 이것은 선조들에게 듣지 못하고 전연 예측치 못했던 70년 전의 소리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성공에 이르는 길을 지시하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승리에 찬 삶을 직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저 주실 때는 실패란 없는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
록 비취리라”

나로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
았던 전도대 파송이었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올 여름 행사는 초등
부 성경학교로만 끝내려 했
는데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은 아주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나
를 필요로 하셨다.

떠나기 일주일 전에서야 전도가
자는 권유를 듣고 안된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왔지만 이미 마음 가
운데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버렸기에 생각해 보겠다는 며칠간
은 망설여야 했다.

망설임 끝에 결국 간다고 결정
은 했지만 3대의 대원이 되고 나
서 새로운 직점이 생겼다. 우리 3
대에 앞서 충청도에서 전도하고 온
1대로부터 충청도 사람들이라 그
런지 무반응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아도 전도하는 일에 자신
이 없던 터라 차라리 안 갔으면 좋
겠다는 기도를 드렸다. 솔직히 고
백하자면 떠나는 날 고속버스에 올
라 타기까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처구니
없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오
히려 내게 있어야 할 무한한 가능
성을 넣어 주셨다.

예정대로 고속버스는 출발했고,
저녁 5시경 충청북도 제천에 있
는 서문교회 앞에 우리 일행(최 봉
호 강도사님, 김 정훈 전도사님,
박 용기 선생님, 김 영철 선생님,
김 수희 선생님, 조 필형 선생님,
본인이 도착했을 때 (심령대부흥사
경회)라고 쓴 커다란 현수막이 제
일 먼저 눈에 띄었다. 성령님의 하
실 일은 기대하며 도착했음을 감
사드릴 때 돌아가는 날도 즐겁고 기
쁜 마음으로 돌아갈 확신도 들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성 은

(조동부 교사)

첫날 첫 집회서부터 주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셨다.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이 되어 있
지 않아서 새벽기도회만큼은 빼 먹
고 싶었지만 단체안에 있는 개인어
임의대로 행동해서는 안되겠기에 훈
련을 쌓기 위해 일어나곤 했다.

낮 강의맨 〈사영리〉와 〈글 없는 책〉
으로 전도 훈련을 받고, 사람을 낚기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갔다. 교회에 대해서 혹은
복음을 받아 들이지 않는 아저씨, 신
자들에 대한 안좋은 인상 때문에 전
혀 관심에 없으면서도 나를 떼어 버
리기 위해서 ‘예’라고 대답하던 청년,
교회나 절이나 똑 같다는 할아버지,
일이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가겠다는 아주머니, 시댁과의 마
찰이 너무워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젊은 새댁, 죽으면 그만이라는 할머
니 등 여러 종류의 마음들을 만나며
충동원 전도대 반대의견 다루는 방
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던 것이 얼마
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나
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지만 딱딱한 마
음들은 풀어지지 아니했다.

화요일 밤이 새도록 서로의 간증
을 나누다 보니 새벽기도 시간이
다 되었고 낮에 전도 나가려 할 때
는 몽롱하기까지 했다. 뒤로 빠지
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나의 육
신을 생각할 때가 아님을 깨닫고
내가 만날 사람들을 주님께서 준비

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서둘러 교
회문을 나갔다.

집집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예수님을 전하며 어떤 집에 들어섰
다. 마루에 제법 식구들이 모여 있
었다. 내 소리를 듣기는 듣고 있으
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흘려
보내고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저녁 집회에 나와 보라는 부탁만
하고 나오려는데 그 집의 아들이
들어섰다.

‘주님! 이 사람은요?’

마음을 가다듬고 나를 먼저 소개
한 후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
고 계신다”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엔 나도 어떤 말로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교회에 나
가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약속을 내
게 하며 이름을 적어 줄 때 얼마
나 기뻐는지 막 울 뻔 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지나!
양 한마리 때문에 아흔 아홉마리나
되는 양을 들에 두었던 목자의 마
음을 오늘날에서야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약속대로 저녁 집회 시간에 나온
청년을 내자리 옆에 앉게 하고 집
회가 끝나기까지 겹눈질하며 반응
을 살폈다. 내 옆에 앉은 영혼이
주님을 놓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
와 그 영혼이 은혜 받기 위해서
또한 단위에 서신 주의 종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없었다.

제천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이

를을 결신자 카드에 적을 때도, 믿지 않는 어떤 할머니의 영접기도 중에 5번이나 기도를 못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 등에는 식은 땀이 다 나기도 하였지만 아멘으로 기도의 끝을 맺을 수 있었을 때 다니엘 12:3 말씀이 가슴에 계속해서 다가왔다. 그래서 전도해야 하

는구나.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이 즐겁기 보다는 숙제를 다 하지 못한채 학교에 가는 학생의 마음 그대로였다. 그러나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내손으로 전한 전도서 한장으로라도 영혼들은 돌아오리라 나를 통한 결신자 5명을 달라고

기도했던 대로 5명의 결신자의 이름을 내 손으로 적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깨달음도 주셨다.

시작부터 끝까지 충만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글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7, 8월 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지구

길음2구역 김말선
미아7구역 김영운
종선구역 이진숙
용두구역 강정미
삼선2구역 이경자
용두구역 알화자
광희2구역 박영애
장위1구역 민옥기
상계1구역 손경희
종암2구역 김태분
삼선2구역 홍순희
도봉3구역 오영관
갈음1구역 이명룡

전동2구역 김종기
면목6구역 신영호
마장구역 김민정
석관구역 안정순
이문2구역 이귀례
행당1구역 유정순
행당2구역 김정의
교문리구역 김영일
풍납구역 오창자
당심리구역 장유화
화학구역 유혜자
강동구역 이성근
홍익구역 박홍준
전호구역 박상형
종곡3구역 최두수
종곡3구역 최정자
석관구역 김순영
면목6구역 김종성
광장구역 함상필
둔촌2구역 김민준

● 3지구

장중3구역 김정숙
장중3구역 이정미
장중3구역 문화자
광희문2구역 이영희
잠실1-1 이동찬
잠실1-1 김소연
문정구역 조근택
시영3구역 홍영례
쌍림2구역 정기남
쌍림2구역 김정옥
시영3구역 이용기
광희문2구역 천세순
장중1구역 윤소옥
자양1구역 장정자
문화구역 정영애

● 4지구

금호4구역 정희정
영동구역 허정숙
보광1구역 송재일

● 5지구

역삼구역 김혜경
한남2구역 양성복
논현2구역 정원희
한남2구역 최영희
세곡구역 장소옥
성남구역 정현자
대방1구역 최복도
신림1구역 김정대
반포3구역 이명자
필동8구역 배연숙
필동8구역 이영애
필동9구역 홍종효
상도3구역 김정현
철원구역 정희자
신림1구역 소재준
상도2구역 이복희
후암1구역 전한백
반포5구역 김경희
상도1구역 이춘자

● 6지구

대흥구역 조경희
용문구역 권준매
동교구역 백종숙
구로구역 박선순
화원구역 김태호
도화구역 장기화
대흥구역 전정순
신촌구역 신희숙
도화구역 김명희
인전구역 박명익
서강구역 박정남
구로구역 임포재
망원구역 김은옥
인전구역 이규만

화곡3구역 김민수
개봉구역 김의치
목동구역 정은숙
마포구역 노정희
연희구역 김자선
구로구역 이옥희
서강구역 봉경희
신정구역 이동인
부전1구역 박두영
서강구역 이영지

● 7지구

북가좌구역 오재숙
남가좌구역 이미숙
홍제구역 김재성
율리2구역 양이재
동송구역 박일영
중무2구역 이영숙
역촌1구역 이애경
응암1구역 안순홍
북가좌구역 유명애

* 축하합니다. (7, 8월 중 결혼)

- 인정옥양(쌍문구역 최희수씨 딸) 7월 6일
- 조영구군(조동수씨 아들)과 김말자양(유년부 교사) 7월 21일
- 김경애양(재미 김성훈, 김관옥집사 딸) 8월 8일

* 위로드립니다. (7, 8월 중 별세)

- 안옥남씨(고정임권사 친모) 6월 30일

- 안춘람씨(유창순씨 시모) 7월 1일
- 안영호씨(상계구역) 7월 5일
- 박소재씨(인현2구역) 7월 9일
- 이정훈군(용문구역 이상구씨 아들) 7월 9일
- 한시영씨(쌍문구역) 7월 17일
- 유명선씨(가회구역) 7월 19일
- 권태용씨(권용, 제정순집사 부친) 7월 31일
- 강신태씨(수유3구역 장영옥씨 부친) 8월 4일
- 김정숙권사(장중석집사 모친, 김종석장로 장모) 8월 8일

성경에 나타난 곳을 따라서

김 기 정 장로

(건축위원장)



평소 염원했던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서는 나대로 전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금번 성지순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여행기간이 짧은 관계로 세밀한 기행문을 기록할 수 없지만, 본 그대로 소감과 여행기를 기록하므로 앞으로 성지순례를 하려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지난 6월 25일 서울을 떠나 미국 여러 곳을 거쳐 영국의 수도 런던에 7월 5일 도착하였다.

한국과의 시간 차이로 미국에서부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피곤이 겹쳐움을 느꼈다.

런던의 도로는 비교적 좁은 편은 편이고, 고대 건물로 꼭 차 있었는데,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대영박물관」에는 수많은 소장품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성경 사본이 많은 점과 우리나라 예술품이 진열되어 있어 감개무량했다.

성바로로 성당, 버킹검궁, 웨스트민스터 사원등을 돌아보던 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신교의 흔적을 널리 찾아 볼 수 있었던 것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7월 7일 유럽문화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에 도착하여 세계에서 제일 풍부한 미술품이 진열되어 있는

「루브르」 미술관을 돌아보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곳에는 로마, 헬라, 애굽의 고적들과 미술품들이 준비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파리의 미술품과 옛 건물들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예 항복을 할 만큼 불란서는 그 나라의 예술을 아끼는 나라다.

파리 시내 한 복판을 흐르는 세느강이 두 갈래로 갈라진 섬처럼 된 곳에 세워진 노틀담 성당은 근 200년 동안에 지은 건물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한쪽 모퉁이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몽마르뜨 거리의 화려함과 에펠탑의 높이에 감탄하면서 베르사이유 궁전, 개선문 오케라 연주장, 나폴레옹 무덤등 기타 여러 곳을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리에서 두시간 비행으로 7월 9일 로마에 도착했다.

약 120명의 교포가 있는 이곳에 한이 여행사점 한이 식당을 경영하는 정씨의 안내로 로마의 여러곳을 관광할 수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바티칸은 나라 전체가 궁궐이요, 박물관이요, 베드로 성당 등으로 세워져 있었다.

세계 최대의 박물관으로 알려진 이곳의 규모와 회화 조각등... 예술에 문외한인 나로서는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지였다.

천 수백년전부터 보관되어 내려오는 건물과 모든 고적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고, 6~7백년전 그려졌다는 회화(그림)는 색채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사도 바울이 갇혔던 지하감옥엔 죄사를 창고가 그대로 있어 감개무량했고, 지하무덤(카타콤베), 팔로세움(원형경기장)등을 돌아 보면서 성도 박해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구라과 여러 나라들도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이룩하는데 모든 건물과 예술을 경수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어느정도 심어졌는

지 찾아보기 힘든 형편으로 생각되었다.

모든 교회의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고, 그 국가 나름대로의 종교의식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았다.

영국은 황실을 중심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았고, 불란서는 예술문화에 치중했으며, 이태리는 구교의식에 편중되어 있어 앞으로의 한국 교회의 선교 사명이 동남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에도 상당한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마음 속으로 다짐해 보기도 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7월 10일 로마에서 약 3시간 걸려 이스라엘의 제2도시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 비자 관계로 조금 까다로운 조사를 받았으며, 택시로 약 1시간 거리인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우리 나라의 전라남북도 크기에 이스라엘 민족 약 300만, 아랍계 60만, 정도이고 미국에 약 600만, 기타 100만등 1천만명 정도라고 한다.

화폐는 성경에 나오는대로 세겔(10불:115세겔)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나라의 자라는 기계화된 농업과 교육이라고 하는데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에서 세운 것이라고 한다.

히브리 대학은 재학생 13,000명중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숙사에 11,0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학과 문명, 법률까지도 구약성서를 기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며, 대체로 유대교가 주축이고 기독교인은 4만명 정도라고 한다.

국토의 남부와 동부는 대부분이 불모지와 사막지대인데 근래 갈릴리 바다의 물을 끌어 올려서 관개시설을 완성하였고, 북부와 서부 지방은 아울러 옥토로 만들어 많은 농작물과 오렌지, 포도, 올리브 과일등을 가공 수출할 수 있게 한 근면, 독실한 국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히브리대학 재학생인(박사코스) 한용운씨의 친절한 안내로 이스라엘 전역을 비교적 자세히 순례할 수 있었다.

예루살렘은 대부분 돌산으로 되어있으나 곳곳마다 개척을 하여 많은 건물들을 짓고 파이프를 용수를 끌어들이 수목들이 울창히 자라고 있었다.

모리산과 골고다 언덕과 감람산이 있어 산과 산 사이에 세워진 산성과 같은 곳이었다.

예루살렘 남쪽 약 35km 위치한 곳에 헤브론이 있고, 인접한 곳에 막벨라굴(창49:30)이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

혀있는 이곳엔 군인들이 수비하고 있었다.

솔로몬의 연못(전도서 2:6)은 수원지로 예루살렘쪽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한다.

라헬의 무덤을 지나 기드론 골짜기와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여기고로 향했다.

중간에 베다니 마을(은11:18)과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이 있는 곳을 지나갔다.

많은 농작물과 과일 나무들이 풍요하게 자라고 있는 여리고성에 도착, 현대, 고대, 헤롯의 여리고로 구분된 이곳의 모습을 되새겨 보았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산은 돌산으로 되어있는데, 이 산 앞 광야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하신 곳(마4:1~11)이라 한다.

「쿰단」은 사해 바다보다 약 100m 높은 곳으로 서남 약 10km 못되는 곳에 위치한 곳으로 뒤에는 여리고로 가는 길옆은 암석으로 절벽을 이루고 있고, 자연 동굴이 많다.

이 동굴 속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것이다.

1947년 봄, 북동 15세 소년이 자기들의 양떼를 몰고 이곳 산속에 들어 갔다가 염소 한마리가 동굴에 들어갔기에 돌을 던졌는데 그 속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항아리 속에 오래된 양피 두루마리 7권을 발견해 갖고 왔다. 이 사해 사본이 당시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되었던 것으로 고대 사본으로 역사적 보물이다.

이 소년은 그 귀한 것(성서)을 고물상에 98불에 팔고 상인은 수리아 대 주교에게 4권을 팔고 나머지 3권은 히브리대학 고고학자에게 팔았다. 수리아 대주교의 것은 미국에 팔려간 것을 다시 이스라엘에서 25만불에 사왔다고 한다.

그 외에도 이 동굴 근처에서 많은 가치있는 고대 기물들을 발견하여 성경연구에 큰 공헌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사해 사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학관에 특별히 사해 사본이 당초에 보존되었던 항아리 모양으로 건물을 지어 보관하고 있었다.

갈릴리 바다보다 5배가 넓은 사해바다는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한 곳이며, 이곳에서 수영을 했는데 염분이 많아 가라앉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구유는 지하실로 보존되어 있었고, 나사렛에는 「수태고지」 교회가 1928년 세워 중동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알려져 있다.

예루살렘 성의 4대문과, 예수님을 만나본 감람나무 지역엔 조그마한 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마가요한의 다락방, 가야바궁전 빌라도 법정, 예수님께서

형을 지신 곳등을 돌아보았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과, 골고다교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곳, 감람산, 주기도문교회, 모리아산, 유대인이 학살당한 기념관, 베다니교회, 나사로무덤, 베테스다 못,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교회(안나교회) 등이 인상 깊었다.

다음날에는 갈릴리 방향 쪽으로 순례를 계속했는데 기브온 연못가, 야곱의 돌베개를 하던 벨엘(창 28:10~19) 아이성, 야곱의 우물 등을 돌아보았다.

이제부터 각 지역의 특성을 간단한 설명으로 소개하고 배경을 알아보겠다.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를 지나 넓은 들판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30m의 깊이로 아주 시원한 샘물이다. 3500년전에 야곱이 관 우물로 주님께서도 마셨을 그 우물을 나도 한잔 마시니 참으로 시원하였다. 바로 앞의 그리십산(세겔산이라고 함)은 축복받은 산으로 이산에는 유달리 산림이 울창하고 이 수가성에는 인구 8만명이 거주하는 큰 도회지였다. 반면 반대쪽으로 예발산(저주받은 산)에는 수목이 전혀 없고 이곳에 마을도 없었다.

요셉의 무덤

세겔에서 북쪽으로 8km 해룻 때에 궁전이 있던 도시로 현재 사마리아 시가를 이루고 있다 이곳의 큰 건물안에는 무덤이 있었다.

스바스티아 지방

세례요한 기념교회가 세워졌던 곳인데 현재에는 교회 터만 남아 있었다.

바로 이곳에 아합궁전(기원전 4세기) 원형궁전 터로 남아 있다.

아마겟돈지방

이스라엘 골짜기와 연결하여 굉장히 큰 평야와 교통요지였다. 성경에 제3차 세계 대전 발생지역으로(메돈)이라고도 한다. 요시왕이 전사한 곳으로 전쟁터도 된다.

바로 인접한 곳에 솔로몬대의 병거성과 성터와 물을 저장 하였던 터널이 (70m×26m) 있었다.

카멜산 (왕상 18:20)

엘리아의 기도 제단터에는 상당히 큰 성당이 있었고 물에는 엘리아 석상이 크게 세워졌다. 돌산으로 해발 500m 높이로 멀리 기온 시가와 엘리아김 부락이 바라보였다. 바로 앞에는 다이아몬드 공장이 있다.

변화산 (다불산)

가멜산 동쪽 12km지점. 이곳에 예수님 변화교회가 세워졌다. 1924년에 많은 자재를 순전히 동물을 이용하여 운반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 1950년에 도로가 되고 포장 되었다. 드보라 여선지의 이야기 배경도 이곳이라고도 한다. 다불산 전면을 중심으로 이 나라의 농업의 중추를 이루는 집단 농장이(250여곳) 이루어지고 있다.

기브스 (집단농장)

우리 일행이 방문한 이곳 기브스농장은 약 1,800명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전체가 공동생활이다. 공동으로 작업하고 관리를 하며 개인 재산은 인정치 않는다. 의식주에서부터 교육, 오락시설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다. 각종 과실이 야채등을 재배하고 양계, 축산 간단한 공장 시설까지 다양하다. 낮에는 노동, 밤에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들의 정신은 공산주의 정신과는 다르다. 국가에서의 강제성은 전혀 없고 어디까지나 자유 의사로 일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기쁨으로 불모의 사막을 개척하는데 있다고 한다. 그들의 표어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로, 농업 용수는 갈릴리 바닷물을 파이프를 통해 농토에 보급 한다고 한다. 저녁 식사를 농장 공동 식당에 초대 받았다. 이 농장 주민은 전체가 이곳에서 식사 제공을 받는다. 그 시설도 굉장 하였다. 우리 생선전의 식당 시설도 이곳의 시설을 본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나라의 농업도 이 나라의 농업 기술을 도입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고마운 것은 전국대학교의 졸업생이 여러명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었고 30여명이 15일간 장학차 이곳에 왔었다는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이였다.

길보아산

기브스농장 바로 남쪽으로 길보아산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이곳은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사한 곳이다. 길보아산 아래 골짜기인 하롯당은 기드온 용사의 전쟁터였다고 한다. 오늘 밤으로 갈릴리 해변까지 도착해야 될 일정이어서 길보아산을 답사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

갈릴리호수 (디베라바다, 기베사렛호수 라고도 호칭)

최장길이 21km, 폭11km, 면적165km², 주위 50km, 톨이한 것은 지중해 해면보다 220m 낮은 곳. 염해보다 1/5밖에 안되지만 이스라엘 전 농토의 젖줄이기도 하며 아름다운 호수였다. 위에서 골짜기마다 물이 요단강 지류를 이루며 흘러내려 호수를 이루고

아래로 요단강을 이루어 사해로 흘러 내려간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간동안 공생활을 하시던 곳, 갈릴리호수 언덕 리베아 도시에서 하룻밤을 지낸 일행은 아침 일찍 햇빛과 함께 호수를 내려다 보게 되니 감개무량하였다.

리베아 도시

갈릴리 지역의 「수도」적 위치에 있는 도시로서 상당한 문화를 이루고 인구는 약 3만명, 시내에는 온천장 시설도 있었다.

8복산 (8복교회) (마 5:3-13)

리베아에서 16km 떨어져 위치한 곳, 갈릴리 해변에 비교적 솟아 있는 등대산으로 이스라엘 여러 교회중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시던 곳으로 교회가 8각형으로 세워졌으며 푸른 잔디와 꽃들이 많이 피어있었다.

5병2어 기념관

8복산에서 조금 내려오면 「디비가」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5병2어의 이적을 나타내신 곳으로서 5C에 교회가 세워졌으나 그후 회람군의 침략으로 파손되었다.

가버나움 (마 8:5)

리베아에서 북쪽으로 16km 위치한 곳, 선지자 나훔의 출생지라고도 한다. 3C경에 회당이 건립된 것은 그후 파괴되고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한 문만 셋이 남아 있었다. 바로 앞에 베드로가 살던 집터가 있었다.

요단강

요단강의 실제 길이는 260m, 항공 길이는 160m 정도 된다고 한다.

갈릴리호수 일주

주위 약 50km 되는 호수를 자동차로 일주, 갈릴리 호수는 산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 갈릴리호수에는 37종의 고기가 있다고 한다. 그중 베드로 고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후 솥불에 구워주신 것이 이 고기라 한다. (요 21:9)

바로 이 해변에 식당이 있어 이 베드로 고기를 튀김한 요리를 만들어 판다. 도미와 비슷한 이 베드로 고기는 참 맛이 좋았다. 나도 베드로가 된 기분으로 한없이 기뻐다. 도중에 수영으로 더위를 식혔다.

가이사라

지중해 안에 접한 곳으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때에 총독부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의 인구는

20만명이 살던 큰 도시로서 고넬료의 집과 함께 모두 「터」만 남아 있었다. 해룻때에 만들었다는 노천극장은 (약 5000명 수용) 지금도 사용하고 있었다. 아그리빠 1세가 이곳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사론평야 (아가서:1)

사론평야를 보기전엔 이스라엘 나라의 농업 국가로서의 평야를 하지 말라는 안내원의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가이사라 쪽으로부터 데라비브, 욥바로 가는 50km가 넘는 광활한 평야는 참으로 기름진 곡창을 이루고 있었다. 가이사라에 살고 있으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고넬료의 가정을 축복하시어 백여리가 넘는 욥바에서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이곳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였다.

욥바

가이사라에서 50km 상거한 곳. 6일 전쟁까지 행정 수도였던 데라비브시와 연결하여 있으며 함께 상업, 항구도시로써 번창한 도시. 솔로몬대에 백향목을 실어오기도 하고 요나가 고기에게 삼켜져서 3일간 갇혔다가 이곳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갔던 곳이기도 하다.

사도바울도 전도차 이곳에서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

피장이 시몬의 집 (행 9:4)

욥바 항구에 있어 베드로가 올라 갔던 지붕에 올라가 베드로가 계시받은(행 10:9-16) 일들을 회상하여 보았다. 이상 여러곳 외에도 몇곳 더 기록할 것이나 바쁜 일정에 노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만 줄이기로 한다. 욥바를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는 마친 셈이 된다.

도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에 들려 사도바울 선생의 발자취를 더듬는 것도 성지순례 다음가는 중요한 순례길이라고 생각되어 아테네로 가기 위하여 델라비브 공항 근처 호텔에 머물렀다.

다음날 아테네 도착했다.

아덴시 그리스 나라의 수도이며 인구는 300만 가량 이 나라 전체 인구 중 절반인 1,000만명은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 이나라의 이민 정책은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듯했다. 우리 교포는 100명 정도. 비행장에 내린 일행은 부득이 우리 대사관에 안내를 요청하였더니 마침 용무로 대사관에 들렀던 그리스 교민 회장이며 그리스 경찰학교 교관인 안현기 선생 내외분이 와서 안내에 임해 주셨다. 부인되시는 윤희 선생님은 우리 교회의 이 옥숙 권찬님의

따님이셨다. 아멘시, 고린도시 안내와 출발할 때까지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여 주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덴 중심부에 위치한 제 1의 올림픽 경기장이었던 광장을 옆에 두고 얼마 떨어진 곳에 사도바울이 설교하던 "아폴로"광장(행 17:22에는 아레오바고로 기록)을 답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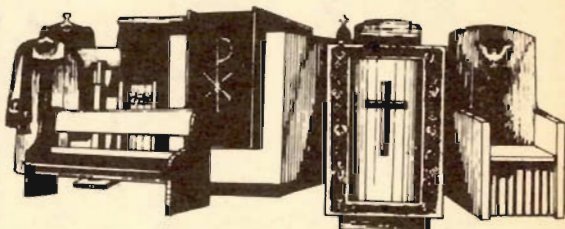
고린도시 아덴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상거한 곳이다. 사도바울께서 제 2차 전도여행시 1년반동안 이곳에 머무르시면서 고린도 전후서와 많은 서신을 기록한 곳이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운하를 건너서 고린도의 새로운 시가지를 지나 외곽지대에 옛 고린도시가 있었다.

그리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박물관에는 옛적 고적들이 상당히 많이 진열되어 있었다. 예수 그리스

도를 다시 한번 상기하였다.

데살로니가시 아덴에서 국내 비행기로 이곳에 도착. 적당한 안내원을 얻지 못한 일행은 오래된 교회를 몇 곳 찾아 다녔다. 그러던 중 형어를 조금 이해하는 수단 청년 한사람을 만나 안내를 받았다. 사도바울께서 이곳에서 3주간 전도 하시다가 성중에서 추방 당하시어 들관에 머무르시던 곳을 찾아 기념하고 바로 그 옆에 세워진 바울 기념교회를 심방하였다. 빌립보 회회아까지 순방 예정이었으나 시간 관계로 돌아 오는 중 해수욕장에 들렀다가 아쉬움을 남긴 채 다음날 아덴을 떠나 홍콩, 대만을 거쳐 귀국하니 7월25일이었다. 한달 동안에 비교적 많은 곳을 돌아보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성애성구사



성애성구사에서는 강남고속터미널 건너편 경남쇼핑센터 5층 13호실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취급품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서적을 개설하고 기독교서적과 목회참고자료를 비치하고 있사오니 시간나시는대로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 내손 2리 308-2
전화 : 안양 2 - 9644
- ◎ 서울전시장 : 강남구 반포동 274
경남쇼핑센터 5층 13호
- ◎ 청주지점 : 화문당 전화 : 3 - 1248
- ◎ 진주지점 : 전화 : 2 - 2644

교회용품

스폰지방석

기독교서적

강대상

의자

성의

※ 강대디자인 및 교회장식 상담실 운영

※ 목사님께 고속버스표 예매의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독교서점

151 남서울우체국 사서함 54호

전화 : 593-5771~2 야간 : 599-7872

SUNG AE CHURCH GOODS CO.
NAM-SEOUL P.O. BOX 54 SEOUL KOREA

대표 임선재

충현출판사 발행—도서안내—

많은 감동을 주는 설교집

김 창 인 목사 지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크라운판 · 400면/반양장 3,500원, 양장 4,000원

새로 나온 평신도 성경교재

신 성 종 목사 지음

엠마오 성경연구

국판 · 336면/반양장 3,00원

교회에서 그룹별 성경교재로,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중임

요한계시록 강해

4 · 6판 · 164면/반양장 1,200원

충현교회 및 여러 곳에서 성경연구교재로 사용하고 있음.

(극동방송 매일(주일 제외))

오후 8시 40분 방송 중)

□ 근간소개 □

평신도를 위한 성경공부

김하진 목사 저

현재 충현교회 각 구역에서 사용중임

율의 신앙

크라운판 · 256면/반양장 2,500원 양장 3,000원

이 책은 교회 및 신학교 등에서 “성경교재”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신학적으로 체계있게 정리되어 “복음의 대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책이다. 바라기는 이 책이 율의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성도들에게 많이 읽혀지기를 바란다. (김희보 목사 서언문 중에서)

- 이 책은 충현성경연구원의 김희보 목사 옮기 강의 시간에 부교재로 사용함.

성경공부와 새신자를 위한

이 종 윤 목사의 저서

산상보훈 강해

신국판 · 88면/반양장 1,000원

우리 주님의 산상보훈 : 저자가 여러 교회에서의 신앙특강을 통하여, 아세아 방송국 등의 전파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해 준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기독교 신앙 ABC

4 · 6판 · 66면/반양장 800원

교회 부흥의 저름길은 새신자 교육을 잘 하는 데서 시작된다. 교회를 처음 찾는 분에게 아직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 이를 위해 쓴 책이다.

총판 정 음 서 림

대표 김 기 정 장로

1110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48 (광화문 새문안교회 옆)

전화 : 723-9531 ~ 2 대체 503268

제 2 차 미주대회 성료

회장에 최화정 목사 선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2 차 미주대회가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미국 LA 동산교회당에서 회집되어 새 회장에 뉴욕노회 소속 최화정 목사를 선임했다.

50만 재미교포의 신앙지도와 교포선교의 귀한 사명 완수를 위해 조직된 동 대회는 5개노회 대표가 참석했다.

선임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최화정 목사(뉴욕노회) △ 부회장 정연발 목사(서북노회) △ 서기 김용기 목사(서부노회) △ 부서기 조정철 목사(동부노회) △ 회록서기 김종혁 목사(총회서부) △ 회록부서기 김이연 목사(와싱턴노회) △ 회계 김종철 △ 부회계 김신철

시설·교육여건 갖추면

“신학교인가”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무인가 신학교 문제에 언급, 「앞으로 교단이나 한국교회를 위해 필요하다면 시설과 교육여건이 갖추어 지는대로 신학교 인가를 해주겠다」고 피력했다.

지난 7월 27일 가전 기자회견에서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소개하면서 기독교계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무인가 신학교가 저질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건전한 신학교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국 10개 신학대학장 성명에

소속교단서 진상조사·인책 움직임

국내 10개 신학대학장들이 문교부의 무인가 신학교 장비를 원칙적인 면에서 지지한다는 성명이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대책협의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비롯한 군소교단 단체들이 일제히 10개 신학대학장들의 성명에 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그 진상을 교단별로 조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 대책협의회(회장 박치순, 오경린, 지인상)는 7월 28일 신학교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지금까지 신학교 인가를 위해 애써왔는데 교단

소속 신학대학 관계자들이 교단정책에 순응않고 신학교 정비를 찬성한다면 교단정책에 위배되는 처사를 한 것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예장(통합)측도 「신학교 정비 지지성명이 교단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며, 교단과 협의도 없이 임의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목회신학원 개강

충신대 강당서

총회는 목회신학원 81년도 교육을 8월 17일 개강하여 2주간에 걸쳐 집중 강의를 실시했다.

제 61회 총회 결의에 따라 목회자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목회자 계속 교육의 하나로 77년 여름부터 실시된 동 신학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목회자가 지원하여 계속 교육을 받고 있다.

기독교서적협의회

김기정 장로 회장 유임

한국기독교서적협의회(회장 김기정)는 지난 8월 18·19일 대전카톨릭회관에서 제 4회 정기총회를 열고 기독교서적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사이버 이단서적은 취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전국 116개 세립대표들이 참석한 동 총회는 장갑수 부회장의 사회, 함경보 목사의 「관계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라는 제목의 설교로 예배를 드린 후 총회로 들어가 2천 3백 88만여원의 결산을 보고 받고 현 임원을 전원 유임시켰다.

또한 동회 발전에 공이 큰 임형섭 장로(인천복음서점운영)를 표창하고 충남북지회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청장년협 이사회 4회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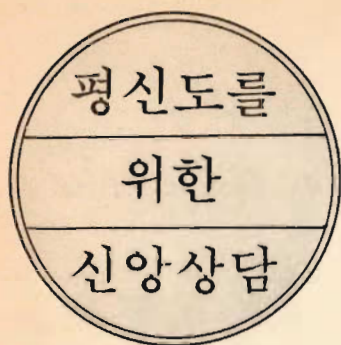
제 4 대 이사장에 정창영 선출

한국보수교단 기독교청장년협의회 이사회는 지난 7월 25일 제 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 4대 이사장에 예장 고신측 소속인 정창영 이사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가진 1부 예배는 전 이사장 김차생 장로의 사회로 진행, 배수호 목사의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란 제목의 설교를 했다.

새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정창영 △ 부회장 허병욱 △ 사무국장 손경수



왜 모든 일이 점점 어렵게만 되어 가는지요

답 /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질문 / 저는 교회에 출석한 지 벌써 5년이나 되었고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웬일인지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잘 안되고 일이 점점 꼬이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것인지? 라고 의심이 듭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러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동에서 청년)

형제의 말에서는 두어가지 면에서 잘못 생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육의 형통과 축복만을 위한 것인 줄 아는 잘못이며,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생이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 고난이 와도 감수합니다. 그래서 '예수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나의 욕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낙을 누리시는 것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이 되도록 간구한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어떤 성도가 이 길을 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 길을 가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갈 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가고보면 합동해서 꼭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는 이 지방을 가야겠다고 생각했

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방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바울은 육체에는 고생이 되었으나 그 지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모든 일이 척척 된다 생각하고 섬기려 합니다.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르지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나 그 들어주시는 방향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이루어져도 기도한 자에게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간구한 것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경우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 이상의 자기 생각이 절대 틀림이 없는 주권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인생은 절대적인 주권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 홍근섭 목사님의 신앙체험담을 간략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월남하기 전 이북 공산치하 산속에서 신앙의 동지와 여러 날을 굶다가 아무래도 더 이상 굶으면 안될 형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생각밖에 '앞에 보이는 큰 동네의 제일 큰 기와집에 들어가서 내가 주는 저녁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홍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집은 인민위원장 집이었습니다. 때에는 인민위원회라는 간판이 걸려있을 집입니다. 그러나 홍목사님은 동네로 내려가 그 큰 집을 바로

향해 갔읍니다. 가보니 분명히 「○○동리 인민위원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읍니까? 홍복사님은 태연하게 주인을 찾았읍니다. 주인이 나왔는데 인민복장에 붉은 완장을 찬 사람이었읍니다. 홍복사님은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주시고 하룻밤 자고 갑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전도사들이요」라고 했읍니다. 집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모셔 밥을 차려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며 주무시고 가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홍복사님은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열심히 기도했읍니다. 그러던 중 날이 흰하게 새고 아침이 되었읍니다. 주인이 밥상을 들고 들어와 하는 말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이남으로 가야지요.」「그러면 전도사님, 제가 꼭 가르쳐주는 동네와 집을 찾아서 남쪽으로 가십시오.」하면서 쪽지 한 장을 내어 주었읍니다.

그러면서 주인말이 「어젯밤 제가 부하 6명과 함께 당신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저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기만 하면 벌벌 떨려 손을 놓곤 하다 끝내 당신들을 죽일 수가 없었지요. 당신들은 진정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였읍니다. 홍복사님은 무사히 이남으로 내려와 서울 내수동교회와 부평 화랑교회에서 목회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겼읍니다.

청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생각과는 영 다르게 하실 때도 있는 것은 신앙세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그 이치를 잘 깨닫고 믿고 안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다리면 모든 일이 청년에게 합동하여 유익이 될 것입니다. (*)

□ 권찰수첩 □

권찰이 갖추어야 할 일(5)

1. 열심히 심방하는 권찰

권찰들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인 가정을 심방하는 일이다. 참으로 교회 부흥의 원인이 되는 심방은 중요한 것으로서 이 일을 맡은 권찰들은 열심히 심방하는 권찰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특별히 권찰들은 심방하는 곳마다 롬 15장 29절의 사도바울 전령님의 말씀과 같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가야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럴 때에 성도들은 믿음이 견고해지며 더욱 자라날 것이며 역경과 시험에 처해 있는 성도는 위로와 권면과 축복의 말씀에서 기쁨과 새 힘을 얻고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신령한 열매까지 맺게 될 것이다.

2. 열심히 심방할 수 있는 권찰이 되려면 어떤 권찰이 되어야 할까

1) 기도도 준비해야 한다.

심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기도하여 자신을 신령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온유 겸손한 사람으로, 정결하고 전심되며 경건한 사람이 되어 심방하게 되어야 하겠다.

2) 성경을 많이 알고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심방하는 권찰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을 때 그 심방의 결과가 어떠하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확신하기 위하여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회를 만들어 배우고 기도하여 확신을 갖도록 힘써야 하겠다.

3) 단정한 몸차림을 해야 한다.

심방을 하는데 옷차림이 어떤 방해 이유가 될 것인가에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권찰들이 심방할 때 열심을 잃게되는 큰 원인의 하나가 심방 받는 사람의 무대질이나 회피이다. 그런데 심방은 권찰들의 몸차림이 지나치게 불결 하다가 나 혹은 지나치게 화려하다면 심방 받기를 꺼려거나 피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방하는 권찰은 몸도 깨끗하고 옷차림도 단정하여 심방 받는 이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며 감화력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4)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어떤 가정에게는 경우에 따라 칭찬하는 말도 부담이 되는 일도 있다. 지나치게 까닭을 묻거나 세밀한 것까지 알아보고자 하거나 책망하는 따위 말들은 하지 않아야 한다. 더욱 위협이나 저주하는 말들은 심방하는 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말이다. 항상 친절하고 정중한 행동이어야 하며 말도 사랑스러워야 한다. 칭찬과 웃음까지도 조심해야 하니 열심히 심방하고자 하는 권찰이 갖추어야 하는 모든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이다. (*)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해외선교지 · 선교사 소식

인도네시아-서 만 수 선교사

1. 할렐루야 회관 신축계획 (선교 10주년기념)

인도네시아 선교에 있어 특기할 일은 오는 9월9일로서 본교회의 인도네시아 선교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선교사업의 확대 및 영구화를 위하여 새로운 선교관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선교관 이름은 "할렐루야 회관"으로서 4,000m² 대지위에 연건평 4,000m²의 4층 건물이 될 것이며 300대의 주차장 시설을 비롯하여 2,000석의 대강당, 현지 교역자 및 평신도 훈련을 위한 강의실, 숙소, 사무실등이 배정될 것이다. 건축 총예산은 약 70만불로 예상되며 현재 건축비 및 대지물색을 위하여 기도중에 있다.

2. 현지교역자 수양회 성료

하기 교역자 세미나가 예정대로 7월28일~31일까지 중부자바 솔로에서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쳤다. 침식을 제공받는 지방교역자 184명과 솔로 시내 교역자 등 200명 이상이 오전 오후 강의에 참석하였고 저녁 부흥집회는 매일 평균 1,00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교역자에게는 왕복여비, 인도네시아 선교부 파송 사역자에게는 특별여비까지 지급)

3. 오지사역현황

장년 17명과 어린이 13명이 결신.

* 기도제목 *

- ① 할렐루야 회관 신축이 성취되도록
- ② 교역자수양회의 뒷 마무리 및 오지사역의 성공
- ③ 선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서만수 선교사님 및 가족 건강과 사역의 더 큰 성공을 위해

홍 콩-홍 증 만 선교사

1. 선교사님 일시 귀국

홍 선교사님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려 선교지 사역에 수고하시던 중 7월 29일 오후 7시 KAL기로 신병 치료차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2. 홍콩한인교회 및 중공선교

이번 홍선교사님의 병환에 의한 일시 귀국을 통해서 홍콩한인교회가 보여준 뜨거운 사랑을 모든 교우들이 감사하고 있다. (감사의 편지를 보내음)

* 기도제목 *

- ① 선교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 ② 가족들의 위로 및 홍콩한인교회의 든든함과 축복을 위해

애 굽-이 준 교 선교사

1. 각종 예배, 기도회등 인도

카이로 한인교회 예배를 은혜중에 인도하고 있으며 카이로 한인교회 7월 정기기도회 가지다. 또한 동산토건회사 겐코(Gupco)공사 현장(새로운 공사현장) 직원들 및 기능공들을 위한 현장 예배를 새로 시작하여 선교사역의 확대를 위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

2. 각종 방문 및 내방등을 통한 교제

카이로 총영사관 주최 리셉션, 간담회 참석. 애굽 농촌교회 슈빈느 엘콤 지교회를 방문. 자이툰 복음주의 교회 및 넘마주이 마을 방문. 애굽 복음주의 교단 총회장 사무실 방문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 기도제목 *

- ① 뜨거운 여름인 애굽 기후에서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 ② 카이로 한인교회 및 새로 시작한 현장교회 예배를 위해

서 독-육 호 기 선교사

김창인 목사님 일행의 유럽전도대회의 모든 진행이 계속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는 서신을 보내오셨다.

* 기도제목 *

- ① 유럽전도대회의 결실이 알차도록
- ②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해외선교지 · 선교사 소식

호 주-김 태 현 선교사

1. 교회활동사항

7월 5일로 창립 8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으며 이웃 양로원 할아버지, 할머니 15명을 모시고 대접했다. 7월 12일은 상반기 성경읽기 시상식을 하였으며, 7월 20일에는 선원예배에 필요한 유인물(찬송, 주기도문, 신앙고백 순서를 담은) 30부를 제본, 약 4개월간 좋은 경향을 하였다.

* 기도제목 *

- ① 호주 주재 한국 선교부의 강화를 위해
- ②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을 위해

파라과이-김 재 창 선교사

1. 6월 30일 위임식을 가지고 백성룡 목사의 설교로 은혜 가운데 마침.
2. 7월 1일 원주민교회(인디안 마카족) 방문
3. 7월 2일 브라질 방문 (백성룡목사님과)
4. 7월 14일 원주민교회 (인디안 마카족)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피선
5. 7월 16일 원주민교회 신축기공식 참석

* 기도제목 *

- ① 현지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위하여 (금년말까지 300명 목표)
- ② 파라과이 사회의 경제불황의 극복 (이민 역사상 최악의 불황)
- ③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칠레-유 재 일 선교사

1. 7월 12~16일 중·고등학생 대심방 실시
2. 7월 16~17일 한인교회 교사수련회 인도
3. 7월 23일 칠레 제 1고아원과 자매결연을 성황리에 마친다. (칠레, 한국대사관 무관과 경찰총감부인 등이 참석, 고아 여자 90명에게 쉼터 90장, 양말 100장, 비누 100장 기타 간식기증, 노래자랑 등으로 하

나님께 영광돌림) 배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방문키로 하다.

4. 7월 26일 백추감사주일로 지킨다.

저녁집회는 성가의 밤으로 칠레 제 2 장로 교회와 연합으로 (135명 참석) 드린다.

5. 연락사항: 칠레 선교부 222793에서 2222793 으로 전화번호변경

* 기도제목 *

한인교회의 안정과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인도-엘리아 겔간 선교사

1. 스리나가(Srinagar)를 떠나서 여려번 여행하며 수루(Suru) 계곡의 사업을 케이, 이, 에프, (KEF) 본부와 관련 갖고 추진하다.
2. 6월에 라다크(Ladakh)에 두번 여행하다.
3. 우담푸르(Udhampur) 여행, 이곳은 KEF 본부가 있는 곳이다.
4. 푸릭(Purig)어로 신약성경 번역하는 작업이 계속중, 요한복음, 누가복음완성.

* 기도제목 *

- ① 파카치크 사업(수루 골짜기)이 어려움 극복토록
- ② 수루계곡 사업을 위한 장소를 빌리도록
- ③ 푸릭어 신약성경 완간을 위해
- ④ 새로운 임지에서서의 선교사역 승리를 위해

* 아르헨티나-백 성 룡 선교사,

일 본-유 병 세 평신도 선교사,
서 독-박 용 삼 평신도 선교사의
선교지 소식은 공한미착.

본 부 소 식

- ① 회장 최석주 장로및 지도 김영희 강도사는 계속 선교지 순방중임(현재 남미 체재중)
- ②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들은 홍종만 목사님의 수솔을 앞두고 지난 8월 9일 밤에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 ③ 8월 30일 오후 3시 30분 유년부실에서 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가 있다.

교회설립 28주년

저녁에 기념음악예배로

교회는 오는 9월 첫주일로 교회설립 28주년을 맞게 된다.

1951년 9월 6일 오후 2시 30분 중구 인현동에 자리잡은 고한명덕 집사내에서 18명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 중현교회가 시작된 이래 28년 동안 연연이 부흥 발전, 이제 한국의, 세계속의 중현교회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교회는 교회 내적으로는 천국 일꾼을 키우는 일에 주력해왔고, 외적으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한국교회에 공헌할 만한 여러가지 일을 해왔다.

이제 또 새성전 완공을 앞에 놓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이제 새성전이 완공되면 우리 교회역사에 새로운 한장을 펼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교회설립 28주년을 맞으며 교회에서 특별행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

으며 이날 저녁예배를 기념음악예배로 드리게 된다.

이날 음악예배에는 제 3성가대(지휘 / 남궁 은 집사, 반주 / 김은백 선생)가 담당하여 핀터슨의 칸타타 「찬송하는 소리 있어」를 연극하게 된다.

여름행사 모두 마쳐

교회는 지난 6월 29일 성경학원의 제 7회 농어촌 교역자 초청훈

련을 시작으로 실시된 여름행사를 지난 8월 26일 영아부 제12회 여름 성경학교를 끝으로 여름행사를 모두 마쳤다.

교회내 20여개의 부서에서 500여명의 교사와 4,000여명의 피교육자가 참가하여 2개월에 걸쳐 기도원과 본교회당에서 열린 이번 여름행사에는 무더운 한 여름동안 말씀을 배우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피차 협력하며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귀한 시간들로 보냈다.

교육위원회는 13개 주일학교의 여름행사 종합평가를 지난 8월 30일 오후에 당회실에서 가졌다.



〈청산여상 수양관에서 선교부 수양회〉

홍종만 목사 귀국

신병치료차

홍콩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신 홍종만선교사가 신병치료차 귀국,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중에 있다. 가

윤형철 ·

김석원 목사유학

본교회의 부목사로 수고하던 윤형철목사(교육위원장·당회장실장)와 김석원 목사(심방담당·장년새신자 I부지도)가 각각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지난 8월 31일 출국한 윤형철목사는 미국의 홀러신학교에서, 9월 8일 출국예정인 김석원목사는 린다비스트신학교에서 각각 수학할 예정이다.

□ 인사이동 □

1. 예배위원회

가. 성가부

① 이동

제 2성가대 이근수 제 1성가대로

2. 교육위원회

가. 주일학교

① 임명

영아부 한미영(여) 정교사
산교부 김옥문(여) 임시교사
산교부 이을우(남) 임시교사

② 퇴임

고등부 오해창(남) 부 감

□ 토막소식 □

*...어린이새신자부는 9월 27일 김정훈 지도교역자의 주관으로 교과연구모임을 도서실에서 갖는다.

*...영아부는 9월 15일 정소영 전도사를 강사로 「영아교육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교사특강을 갖는다.

*...유치부는 9월 한달을 전체학생대심방의 기간으로 정했고 20일에는 1월부터 9월까지 배운 찬송을 가지고 반별 찬송가부르기대회

를, 27일에는 연구수업을, 또한 오

후예배는 어린이전도집회로 모인다.

*...유년부는 9월 한달을 전체 학생대심방의 기간으로 정했고 18일 저녁에는 교사기도회로 26일에는 구역장훈련을 실시한다.

*...초등부는 9월 한달을 전체 학생대심방의 기간으로 정했고 18일에는 교사기도회를 갖는다.

*...중등부는 9월 한달을 전체 학생대심방의 달로 정했고 6 일에는 성경퀴즈대회를, 13일에는 박원영 선생을 강사로 「전도훈련」을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며 20일에는 장충공원으로 노방전도를 나간다.

*...고등부는 9월25일 영아부실에

서 교사기도회를 철야로 모인다.

*...대학부는 9월18일 실로암실에서 교사기도회를, 29일에는 학습평가회를 지도교역자 주관하에 갖는다.

*...청년부는 9월13일 먼려회 제13차 정기총회를 청년부실에서 갖고 사업보고, 신임원선출, 사업계획등의 시간을 갖는다.

*...장년새신자 I 부는 9월 20일에 십계명외우기대회를, 26일에는 당회실에서 교사기도회를 갖는다.

*...장년새신자 II 부는 9월20일, 수료식 및 세례식을, 27일에는 찬송부르기대회를 가진다.

*...노년부는 9월20일 찬송부르기

대회를 가진다.

*...산업진도교육부는 9월 6일 신성종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교사특강을, 13일에는 주석위로야외예배를, 20일에는 김연이 전도사를 강사로 학생특강을 갖는다.

*...선교부는 9월 4일 당회실에서 2 학기 개강식을 갖고 18일에는 새성전 기도실에서 학생교사 철야기도회로 모인다.

*...새가정부는 20일 새가정부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예배」 특강을 최정길선생이, 27일 집회시간에는 학생신앙강증회를, 또한 집회후에는 상계동에 있는 시립양로원을 방문한다.

각 종 통 계

1981. 8. 2 (매월 첫 주 기준)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예배후
- 매 주 수요일예배후 9 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운행버스를 (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1번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 방면행 운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 - 1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한 101번을 거서서
광주 초월14번을 신청

구 분		남	여	계							
예	주일낮	I 부	249	421	670	총세대수		4,230			
		Ⅱ부	416	1,011	1,427						
		Ⅲ부	401	721	1,122						
		Ⅳ부	190	459	649						
	계	1,256	2,612	3,868							
백	주 일 저 녀	247	449	696	신	교인	남	3,813			
	삼 일 저 녀	103	230	333			여	5,606			
	계						계	9,423			
주	어 린이새신자부	28	29	57	급	세례	남	1,995			
	영 아 부	189	134	323			여	3,424			
	유 치 부	124	174	298			계	5,419			
	유 년 부	167	183	350			유아	남	515		
	초 등 부	187	181	368				여	421		
	중 대 부	161	178	339				계	936		
	일	고 등 부	127	160			289	교인	학습	남	299
		대 학 부	90	74			164			여	405
		청 년 부	65	144			209			계	704
		학	장 새 I 부	45			135			180	원입
장 새 II 부			17	50	67	여	1,340				
장 년 부	20		254	274	계	2,349					
교	노 년 부		36	105	141	교인	남	1,009			
	산 업 교 육 부		21	62	83		여	1,340			
	선 교 부	25	46	71	계		2,349				
	새 가 정 부	22	23	45	교인		남	1,009			
	합	2,930	5,223	8,153			여	1,340			
계				계		2,349					

9월의 행사

- 6 일 정기제직회 · 재정위원회 · 교회설립 28주년 기념주일
- 11일 전체철야기도회
- 13일 남전도회 월례회 · 권사회 월례회
- 16일 여전도회임원철야기도회
- 20일 여전도회 월례회 · 재정위원회 ·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 심방위원회 · 자산관리위원회 · 출판국 월례회
- 23일 권사회 철야기도회
- 27일 구역권찰회 · 전도위원회 · 건축위원회
- 10월 2 일 정기당회

편집하고 나서

※...7·8월호를 묶고 9월호를 교회설립 28주년 기념특집호로 낸다. 특별 기획으로 장로님들을 모셔 28주년을 조명해 보는 좌담회를 가졌다.

본 좌담회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지방교회 탐방을 통해서 들은 충현교회를 생각하는 기회로 삼았고,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닌 남을 통해서 본 이야기이기에 더욱 관심이 가는 일이다.

바른 이해와 건전한 비판들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윤두한장로님과 김차생장로님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좋은 글을 써 주셨다. 이제는 일선

에서 물러나신 윤장로님의 글이기에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모두가 일독하고 바른 자세를 찾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무더위도 가시고 열매맺는 계절이 왔는데 바쁜 생활가운데에서도 여유를 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히는 생활들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주간으로 수고하시던 윤형철목사님이 미국 유학차 출국하셨다. 그동안 권두언을 써 주시며 수고하신 윤목사님의 앞길에 하나님의 크신 가호가 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빌어 드리자.

* 월간충현 조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종주

이형수 김정태

월 간 충 현

9월호

제9권제8호

통권 제91호

1972년 4월30일 창간

1981년 9월 6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편집부장 / 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0-3407 · 3408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각부 수양회가 연이어 열렸다. 8월 10 - 13일, 기도원에서 열린 고등부 수양회의 한 장면〉



〈영아부의 8월 25, 26일 양일간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끝으로 우리 교회 여름행사의 막을 내렸다〉



〈어린이새신자부·유년부·초등부의 여름 어린이성경학교가 7월 27 - 30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7월 19일 맥주감사절을 맞아 주일학교 영아부에서는 이날 저녁에 감사의 특별시간을 가졌다〉



〈7월 27 - 31일에 있었던 농어촌파송전도에서 정선중앙교회로 파송된 제2대가 정선역에서 전도하고 있다〉



〈제전 서문교회에 파송된 제3대의 어느 대원이 축호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실로암
못가에서

여호와를 바랄찌어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 댄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 댄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찌어다.

〈시편131편〉